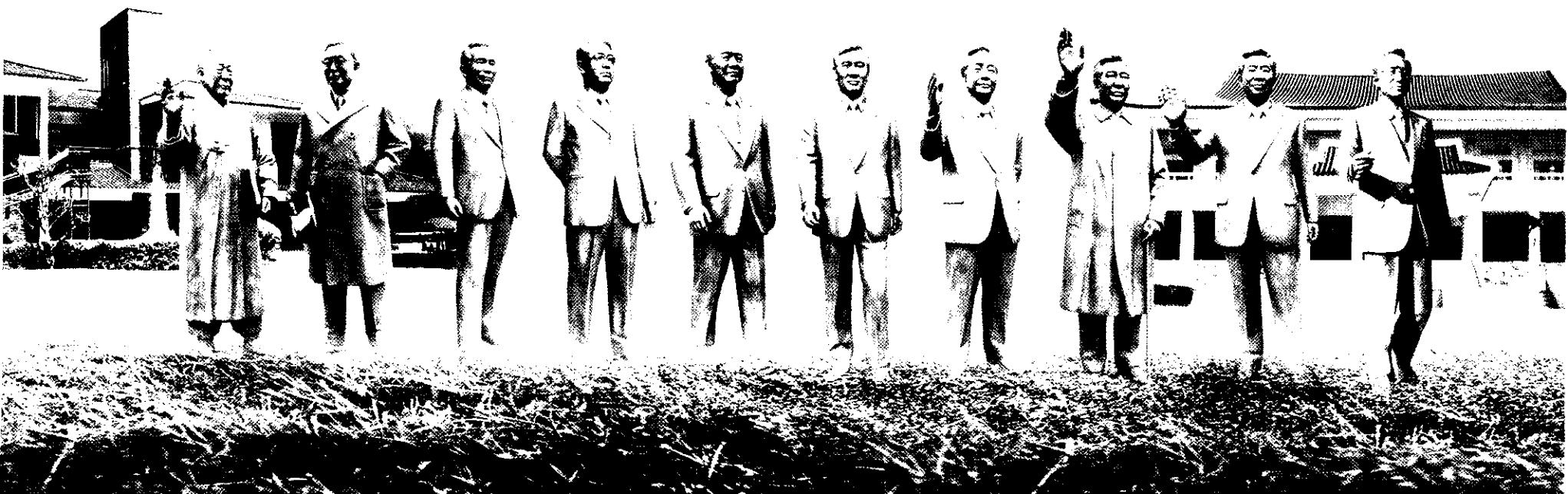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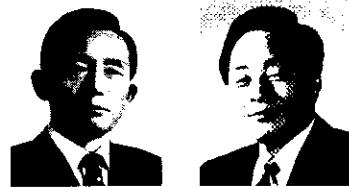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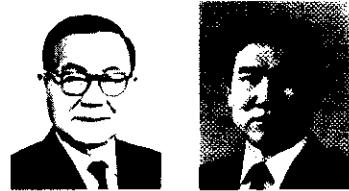


청남대 개방 12주년 기념  
**대한민국**  
**역대 10인의**  
**대통령을 만나다**





## CONTENTS

001 일러두기

003 발간사

017 역대 大統領을 만나다

059 역대 大統領의 업적·생애를 그리다

130 청남대 역사기록화의 제작 의의

132 대통령 역사기록화 추진과정

136 대통령 동상 제작 추진과정

## 일러두기

1. 본 도록은 2013년 기초작업을 시작으로 2015년 6월 완료된, 초대 이승만대통령부터 17대 이명박대통령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대통령 총 10인에 대한 동상 및 역사기록화사업의 결과를 담은 것이다.
2. 우선 역대 대통령의 연보 및 주요업적에 대한 개황을 싣고 이어서 동상에 대한 설명을 부가하였다.  
나음으로 역사기록화 부문은 10인 대통령 각각의 생애와 대통령 재임기간의 업적을 나누어 대통령별 2점씩, 총 20점의 작품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담고 있다.
3. 대통령의 연보 및 업적 부문은 본 사업의 사전작업으로 추진된 『대통령 역사교육관 운영 및 역사기록화 연구』(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연구책임 신영우 교수)의 내용을 요약, 발췌하였다. 한편 역사기록화 20점에 대한 작품설명은 해당 작가의 원고를 일부 수정, 편집과정을 거쳐 게재하였다.
4. 현재 동상은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 주변과 각 대통령 길에 분산 배치되어 있고, 역사기록화는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 1층에 전시되어 있다.

## 대통령 역사기록화 사업 준공으로 청남대가 대통령 테마 파크로 우뚝 설수 있기를…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새로운 '볼거리' 가 탄생했습니다.  
지난 2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추진해온 역대 대통령 동상과 역사 기록화가 마침내 성공리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동안 동상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영원 작가님,  
그리고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풍성한 화폭으로 재현해 주신 소무 분의 화백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역대 대통령 동상과 역사기록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노록(圖錄)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놓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새로운 민주주의를 시험한 윤보선 대통령, 경제개발로 선진 공업국의 기반을 닦은 박정희 대통령, 에너지 자원외교를 펼친 최규하 대통령, 대한민국을 세계 스포츠 무대에 우뚝 세운 전두환 대통령, 북방외교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노태우 대통령, 두명한 사회를 지향한 김영삼 대통령, 햇볕정책으로 남북화해의 손을 잡은 김대중 대통령,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은 노무현 대통령, 미래 녹색 성장의 길을 모색한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열 분의 전직 대통령의 동상과 20점의 기록화를 통해 역대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보다 자세히 국민들에게 알려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동상·역사기록화」 도록에는 각 대통령이 태어나 성장한 과정, 취임 이전에 활동한 내용과 그 당시의 시대상이 소개되고, 열 분의 대통령께서 국정 목표로 제시한 내용이나 역사적으로 평가할 만한 중요한 사건과 업적이 중점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과거에 말을 걸 수 있는 것도 기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록화 사업은 역대 대통령의 발자취와 업적을 통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과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역대 대통령 동상·역사기록화」는 이번에 개관식을 갖는 '대통령 기념관'과 더불어 청남대가 대통령 테마 파크로 우뚝 설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음하기 위한 밑거름이자 나침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청남대는 「역대 대통령 동상·역사기록화」 전시를 통하여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열 분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리 현대사를 쉽고도 인상적으로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탄생한 「역대 대통령 동상·역사기록화」가 앞으로 역대 대통령님들에 대한 존경심의 발로와 함께 생생한 역사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데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일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 김영원(金永元) 조각가

### 주요 경력

농어조각회회장 역임  
한국현대조각학회회장 역임  
총의대학교미술대학장 역임  
시단법인 한국조각기협회 이사장 역임

### 수상 및 공모전

2002 제16회 김세중 조각상 수상  
1990 선미술상 수상(선미술)  
1981 제30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특선(한국군'예 진흥원)  
1980 제7회 한국미술내상전 우수 프린티어상 수상(한국일보) 등 다수

### 전시활동

#### [개인전]

김영원 초대전 생명과 명상 (경기도립미술관) 등 15회

#### [단체전]

2013 Novello Finotti and kim young won  
(이태리 파도바 에레비타니박물관, 저코반궁 시립미술관,  
라대카 화랑, 스크로베니공원, 파노 바 시청광장)  
1994 제22회 쌍파울로 비엔날레(브라질 쌍파울로) 등 나수

#### [초대전]

한국미술 100년전 2부(국립현대미술관) 등 200여회 출품

#### [단체전]

한·일 현대조각전(후쿠오카 시립미술관) 등 100여회 출품

#### [작품 소장]

광학문 세종대왕 동상,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동상  
이태리 파도바 (the Foundation Opera Immacolata Concezione)

중국 칭화대학교 교정

중국 우한시 조각공원

국립현대미술관

호암미술관 등 수십 곳

#### [기타]

3대국사제작

대통령 기념관 · 대통령 길을 찾아

# 역대 大統領을 만난다



청남대 개방 12주년 기념  
대한민국 역대 10인의 대통령을 만나다

제1~3대 대통령  
**이승만** [李承晚]  
1875.3.26~1965.7.19



- 1875.03 황해 평산 출생
- 1896.11 바자학당에서 '협성회' 결성
- 1899.01 고종 폐위음모에 연루되어 5년 7개월간 수감 후 미국으로 출국
- 1919.09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
- 1925.04 상해 임시정부 임시 대통령에서 면직
- 1945.10 33년만에 귀국
- 1948.05 최초의 자유총선거 실시
- 1948.07 대한민국 헌법 및 정부 조직법 공포
- 1948.07 대통령 당선
- 1948.08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 1950.06 한국전쟁 발발
- 1953.07 한국전쟁 정전 협정
- 1954.11 사사오입 개헌안 통과 및 공포
- 1956.05 제3대 정·부통령 선거
- 1960.03 제4대 정·부통령 선거 / 마산에서 부정선거 규탄시위 발생
- 1960.04 4·19 혁명 발발
- 1960.04 하야 성명 발표
- 1965.07 서거(하와이 호놀룰루)

## ● 이승만

李承晚 | Rhee Syng-man

The 1st-3rd President (1948~1960)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그는 조선왕조의 몰락을 목격하며 새 나라 건설을 위한 근대적 계몽운동에 참여하였으며, 불행히도 조국이 일본에 강탈되자 미국 등지에서 외교 중심의 독립운동을 하였다. 해방 이후 귀국하여 국내 대다수 정치세력이 연합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펴나갔다.

###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놓다.”

남한의 총선거는 김구와 김규식 등 중도우파가 불참한 가운데, 1948년 5월 10일 최초로 서구식 보통선거로 실시되었다. 이때 198명의 제헌의원을 선출하였고 대한제국과 임시정부 때부터 사용하던 ‘대한민국’을 국호로 결정하였다. 7월 17일에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8월 15일에 정부수립을 선포하여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어서 1949년 1월에는 국기의 표상을 결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여러 차례의 선거와 지방자치제 실시, 외교관계 수립 등의 국정을 운영하며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았다. 1952년에는 제1차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였고, 1954년 제2차 개헌으로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등 신생 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외교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알리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12월 12일에 유엔(UN)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에 선거로 이루어진 유일한 정부로 승인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소련과 그 동맹국들을 제외한 미국 및 자유 진영 등 50여 개국의 개별적인 승인을 받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유엔 승인과 여러 나라와의 수교는 미국 등 강대국의 영향력이 작용한 측면이 강하지만, 오랫동안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신망이 높았던 이승만의 노력과 역할도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952년 1월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해 이승만 라인(평화선)을 선보함으로써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해역의 수산자원과 해저자원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전쟁 막바지에 미국이 휴전을 모색하자 아이젠하워 행정부에 협박과 회유를 놓반한 ‘벼랑 끝 외교전술’을 펼쳐 1953년 10월 우리나라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54년 7월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안보와 경제 협력의 길을 밟았다.

### “전쟁 속에서 나라를 재건하다.”

1949년 6월 미국은 군사고문단만 남겨놓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켰고 이듬해인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태평양 지역의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다고 선언하면서 국제정세는 한국에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이때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강행하여 전혀 준비되지 못한 남한 정부를 충격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한국전쟁으로 산업 기반은 폐허가 되고 국민 생활은 피폐하였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승만은 전쟁을 이겨내어 새롭게 나라를 재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대미 외교를 통해 1950년 7월 ‘대전협정’을 맺어 국군과 유엔군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공산군을 이북으로 축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1950년 1월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조인으로 미국의 경제원조를 이끌어내었고, 이어서 1953년 10월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전쟁 중 끈질기게 미군의 증편과 장비의 현대화를 요구하였고, 전쟁 전에 10만 명에 불과하던 한국군의 규모를 1954년 65만 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였으며, 1954년에는 미국을 방문하여 추가적인 군사지원을 이끌어내었다. 이러한 군사안보적 노력은 이후 나라의 재건과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작용하였다.



### “교육으로 민주주의의 토대를 쌓고 우리말 사용을 정립하다.”

이승만 정부의 교육 분야 업적은 이후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여러 분야의 발전에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부는 미군정의 교육정책을 계승하면서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를 강화하였고, 특히 1950년 6월에 6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인구의 증가와 문맹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정부가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한 결과 1969년에는 학령 아동의 취학률이 95.3%로 높아졌고, 문맹률은 해방 당시 80%에서 22%로 낮아지게 되었다. 나아가 중고등학교를 대폭 증설하고, 1949년 6월에는 국립대학을 설립하였다. 그 결과 해방 당시 19개 대학이 68개로 늘어났고, 대학생 수는 8천 명에서 약 1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교육 정책은 이후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은 물론 문화적 토대 마련과 함께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조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정부는 한글전용 정책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한글시대’를 열었다. 1948년 10월 한글의 전용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한편, 그동안 지역과 사림에 따라 사용이 달라 공문서의 표기는 물론 문화적 동질성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1950년에 한글 철자법을 개정하였다. 1954년에는 한글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1957년 10월 「우리말 큰사전」을 발간하여 한글 맞춤법의 통일과 어휘의 정리 등 한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농지개혁으로 농민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다.”

이승만 정부는 여론의 압력에 밀려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깨닫고 「농지 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1949년 6월에 법을 제정하고 1950년 3월에 이를 공포하였다. 그 결과 전체 농지의 약 40%에 달하는 58만 5천 정도의 땅을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재분배하였다. 이 개혁으로 해방 당시 전체 경작 면적의 35%에 불과했던 자작지의 비율이 92.4%에 달하였다. 이것은 비록 완전한 개혁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의 지주적 토지소유제를 어느 정도 청산하고 자작농적 토지소유제를 확립함으로써 농민들의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57년에는 농업은행을 설립하여 농민들이 편리하게 영농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경제의 첫 걸음을 걷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원조에 의해 밀가루·설탕·면화산업 중심의 소비재 산업이 발달하였으나, 집권 초기에 국민의 생활수준을 현격하게 향상시키지는 못하였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20억 달러 이상의 무상원조를 받아내어 전후 경제를 복구하였으며,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공업화의 단초를 열었다.

1950년대 말 이후에는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극복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대 후반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1958년 부흥부 안에 산업개발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60년 4월에는 「3개년 경제발전 계획 시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것은 며칠 후 자유당 정권의 몰락으로 시행되지는 못하였지만, 그 후 민주당 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에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1955년 충주에 비료공장을 건설하고, 문경에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여 농업과 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산과 삼척에는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부족한 전력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1956년 1월에는 한미 경제회담을 개최하는 등 미국과 원활한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경제 발전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제1~3대 대통령  
**이승만** [李承晚]  
1875.3.26~1965.7.19



# Rhee Syng-man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대통령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나라로 탑바꿈 하는 기틀을 나진 분이다. 오래 항일독립투쟁 시기를 거쳐, 광복 이후 제헌국회 의장으로서 국가의 헌법 을 만들어 법치국가다운 면모를 갖추게 하였다. 국세정세에 대한 높은 식견과 탁월하고 노력한 외교력 으로 미족상잔의 6·25동란을 극복하고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국가안보의 바탕을 다졌으며 이승만 라인을 선도하여 일본으로부터 독노를 시켜냈다.

이렇듯 민족의 뿌리는 지키면서 근대국가로 성장시키고자 하였던 그의 신념을 한복 입은 모습으로 표 현하였다. 한복이 오랜 세월 독립운동을 펼쳐온 독립투사로서의 이미지와 민족지도자의 면모를 상징하 는 네 적합한 의상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선서하듯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 고 왼손에는 헌법 책을 들어 한 발 내딛어 그의 모습에서 온화하지만 굳건한 의지가 느껴지도록 하였다.

원손에 들려있는 헌법 책은 건국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을 강조하며 한 손을 앞으로 내미 자세는 국민 앞에서 대한민국의 출범을 선포하는 자세이다. 해방 정국의 혼란과 미족상잔의 한가 운데서 연로하나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지도자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청남대 개방 12주년 기념  
대한민국 역대 10인의 대통령을 만나다



제4대 대통령  
**윤보선** [尹潽善]  
1897.8.26~1990.7.18

- 1897.08 충남 아산 출생
- 1920 상해 임시정부 최연소 의정원 의원으로 활동
- 1948 제2대 서울시장 취임
- 1949 제2대 상공부 장관 취임
- 1957 민주당 중앙위원장
- 1960.08 제4대 대통령으로 취임
- 1960.12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칭
- 1961.05 5·16 군사쿠데타 발발, 군사혁명위원회 설치
- 1961.05 대통령 하야 성명 발표(5.20 번복)
- 1961.08 박정희 최고의장 8·12 성명 발표(정권이양시기, 국회구성문제 등)
- 1962.0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 1962.03 원자력 연구소 원자로에 첫 점화
- 1962.03 대통령직 사임
- 1963 제6대 국회의원
- 1966 신한당 창당, 총재 취임
- 1967 제6대 대통령 선거 낙선
- 1969 3선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결성
- 1990.07 서거

## ● 윤보선

尹潽善 | Yun Po-sun  
The 4th President(1960~1962)

윤보선은 대한민국의 제4대 대통령이다.

조선 사대부 기문의 후손으로 한학에 능통했으며, 영국 유학으로 근대 학문 또한 겸비한 '개화 선비'였다. 상해 체류 시절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의 최연소 의원으로 선출되어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해방 직후 이승만 정부의 각료로서 서울시장과 상공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6·25전쟁 기간에는 대통령의 지시로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취임하였다. 적십자사 총재 시절에 일어난 국민방위군 사건과 부산 정치파동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결별하여 민주국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의 정치지도자로 변모하였다. 민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3대에서 6대에 이르기까지 연속해서 민의원으로 당선되어 1960년 4·19혁명 이전 민주당의 최고 지도자 자위에까지 올랐다.

### “4·19혁명, 일어나다.”

6·25전쟁 직후, 급격히 지지 기반을 상실한 이승만 정부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무리하게 감행하였다. 급기야 부정선거 규탄시위에 참여하였던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일제히 이승만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서울에서는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의 교수들이 이승만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거리 행진을 벌였으며, 경찰이 경무대 부근에 운집한 시민들을 상대로 실탄사격을 하여 사상자 다수가 발생하였다.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하야 성명을 발표하였고, 곧바로 외무부 장관 허정을 수반으로 한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그리고 사회”

대한민국의 첫 정부인 이승만 정부는 36년간 지속되었던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사회갈등을 봉합하여 새 나라의 초석을 바로 놓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많이 부족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국내에서의 정치적 기반이 튼튼하지 못했던 관계로 과거 조선총독부에서 일하던 인사들을 정부 각료 등 주요 요직에 대거 등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사회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더 부추기는 결과만 양산될 뿐이었다.

결정적으로, 전쟁과정에서 보인 이승만 정부의 무능과 실책, 나아가 국민의 생존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안위만 쟁취로써 참화에 시달리던 국민들은 더욱 참담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죽적되었던 국민들의 불만은 부정선거로 촉발되어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혁명으로 분출될 수밖에 없었다.

### “새로운 민주주의를 시험하다.”

4·19혁명에 의해 새롭게 조성된 정국 하에서 허정 내각은 야당 민주당의 주장과 여론에 따라 내각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에 의거하여 7월 29일 제5대 민의원 및 초대 참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주당이 압승하여 구파의 윤보선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신파의 장면이 국무총리에 임명되어 실권을 장악하였다.

1960년 8월 23일에 출범한 장면 정부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시행하여 언론이 활성화 되고 자유가 넘쳤다. 민주당 정권은 기존의 강력한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폐지하고 1960년 6월에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별도로 두되 실권은 국무총리가 행사하는 새로운 의회제도로서, 이것은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을 없애는 장점이 있었으나, 혼란한 시기에는 원활한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한편 1960년 11월에는 반민주행위자 처벌 소급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어서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을 제정하여 친일파의 청산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 “경제발전의 장기적 밑그림을 그리다.”

1950년대 말 이후 물가는 1년 동안 30% 상승하고 경기침체로 완전실업자는 240만 명이나 되었으며, 잠재실업자까지 포함할 경우 노동인구의 40% 이상이 실업자였다. 윤보선 대통령 재임 시기 장면 내각은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일주의를 내걸고 자유당 정권에서 산업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립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확보가 어려워 미국의 제언에 따라 먼저 1950년대 대공황기에 미국이 시행한 것과 비슷한 국도개발 사업에 착수하였다. 1961년 봄부터 댐 건설 등을 위해 2천여 명의 건설단원을 선발하여 현장에 근무하게 한 후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지원학보에 나서 1961년 미국과 경제원조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서독과 차관협정을 체결하고 이탈리아와도 경제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1962년 2월 울산에 공업지구를 기공하였고, 원자로를 점화하는 등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시행한 경제개발 계획의 밑그림을 그렸다.

###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킨다.”

윤보선 정권에서는 사회와 문화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단군의 건국 연호인 ‘단기’ 사용을 중지하고 1962년 1월부터 ‘서력’ 연호를 사용하였다. 1961년 6월에는 국립영화제작소 설치법을 통과시켜 영화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12월에는 한국문화방송을 개국하여 방송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1961년에는 부정축재자 특별 처리법으로 부정부패를 없애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 시도하였고, 처음으로 가족계획을 수립하여 빈곤 원인의 하나였던 산아 제한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제4대 대통령

## 윤보선 [尹潽善]

1897.8.26~1990.7.18



# Yun Po-sun



**정** 치인들 기운데 영구신사로 불릴 정도로 멍쟁이 대통령이었다.

재임기간이 일 년 남짓 밖에 되지 않아 대통령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기지는 못하였지만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야당총재로, 대통령 후보로 주대되어 민주주의를 시켜냈다.

영국에 유학하여 에딘버러 대학을 나왔으며 대통령 이전에 초대 서울시장, 상공부상관,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을 지낸 경력이 말해주듯 행정 능력을 갖춘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몸에 배 정치인이었다.

두터운 익누를 입고 한 손은 호주머니에 넣고 노자를 벗어든 모습은 평소의 윤보선 대통령의 모습 그대로를 재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현대적인 신사 이미지를 부각할 수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제2공화국의 내각책임제하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펼쳐보지 못하고 물려낸 불으한 정치 풍운아의 이미지도 겹쳐 다이아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었다.

굳게 다문 입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눈, 포켓에 손을 찔러 넣은 자세, 모사를 벗어 는 모습, 긴장감과 여유로움을 조화시켜 인물소개 작품으로도 재미를 느낄 수 있기를 소망했다.



청남대 개방 12주년 기념  
대한민국 역대 10인의 대통령을 만나다



제5~9대 대통령  
**박정희** [朴正熙]  
1917.11.14~1979.10.26

- 1917.11 경북 구미 출생
- 1932.03 구미공립보통학교 졸업
- 1937.03 대구사범학교 심상과 졸업
- 1944.03 일본육군사관학교 졸업
- 1950.12 육영수와 결혼
- 1961.05 5·16 군사쿠데타 주도
- 1962.03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취임, 대통령직 권한 대행
- 1963.10 제5대 대통령 당선
- 1965.06 한일협정 조인
- 1967.05 제6대 대통령 당선
- 1969.10 3선 개헌(제6차 헌법 개정)
- 1970.04 새마을운동 시작
- 1970.07 경부고속도로 개통
- 1971.04 제7대 대통령 당선
- 1972.07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 1972.12 제8대 대통령 당선
- 1972.12 유신헌법 공포(제7차 헌법 개정)
- 1974.08 대통령 저격 사건 발생, 육영수 여사 사망
- 1978.07 제9대 대통령 당선
- 1979.10 부산·마산 민주화 운동 시작
- 1979.10 서거



## ● 박정희

朴正熙 | Park Chung-hee  
The 5th~9th President (1963~1979)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제5~9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군인 출신 대통령으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20년 가까이 대한민국 사회를 통치하였다. 사회 앤리트 가문 출신이었던 전임 이승만, 윤보선과는 달리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던 박정희는 일본 육사 출신으로 만주군 장교 복무와 해방 직후 좌익 활동이라는 불리한 과거 전력을 놀라운 생존의지와 투철한 권력의지로 극복하고 마침내 최고 통치자가 되어 강인한 불굴의 상징으로 남았다.

### “경제개발로 선진 공업국의 기반을 닦다.”

1963년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는 ‘경제개발과 조국 균대화’의 가치 아래 강력한 국가 주도의 ‘경제제일주의’ 성장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경제기획원을 창설하여 경제개발을 총지휘하면서 관료와 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주도의 경제개발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위해 여러 기반시설의 확충과 각종 공업단지, 수출단지를 조성하였다.

1964년에는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울산 정유공장을 건설하였고, 이어서 여천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였으며, 1978년에는 고리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중화학공업의 기반을 다졌다. 1973년에는 포항제철을 완공하여 산업의 근간인 철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한편 1969년의 마산 수출자유지역을 시작으로 구미 전자공업단지와 창원 기계공업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가의 내수는 물론 수출의 기초를 닦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변화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게 되었고, 1960년 5천 5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은 1977년에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1960~1970년대 수출 신장률은 연평균 30%가 넘었고, 경제 성장률은 평균 8.3%를 기록하여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어 ‘한강변의 기적’이라고 불렸다.

### “국토의 대동맥을 연결하여 1일 생활권을 만들다.”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을 최대의 목표로 설정한 정부는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확보는 물론 각종 산업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수출 상품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물류유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먼저 서울과 인천항을 연결하는 경인고속국도를 착공하여 1969년 7월에 개통하였고, 자본과 기술 등 많은 문제로 대다수가 반대하는 가운데 1968년에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우리 역사상 가장 큰 건설공사를 시작하였다.

착공한 지 2년 5개월 만인 1970년 7월에 개통된 경부고속국도는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동시에 경제개발의 상징이 되었다. 서울-수원-대전-구미-대구-포항-울산-부산 등 많은 산업단지를 4차선으로 연결하는 428km의 대단위 공사로 연인원 892만 명이 투입되었고, 6개의 터널공사를 포함하여 수많은 다리를 건설하는 등 군사작전 같은 추진력으로 ‘하면 된다’는 새로운 건설 신화를 수립하였다. 1973년 11월에는 호남고속국도를 개통하였고, 이 외에도 영동고속국도 등 모두 9개의 고속국도를 건설하였다. 이러한 수많은 고속국도의 개통은 수출 상품의 유통량 증가와 운송 시간의 단축은 물론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드는 등 국민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1974년 8월에는 서울에 지하철 1호선을 개통함으로써 서울과 수도권 교통의 광역망을 구축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 “새마을 운동과 식량 증산으로 농촌사회를 변화시킨다.”

넉후된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해 1971년부터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여 근면·자조·협동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초가집 개량, 도로 정비, 전기와 수도시설 확충 등을 실행하여 침체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오랫동안 '보릿고개'에 시달린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증산 기획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벼를 보급하였다. 1971년부터 전국에 통일벼 종자를 보급하여 식량증산을 꾀한 결과 1977년 말에는 쌀의 자급 달성을, 즉 '녹색혁명 성취'를 선포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혼식 장려책과 함께 분식의 날을 별도로 지정했으며, 지역의 증대를 위해 마을마다 퇴비증산 대회를 열어 적극 장려하였고, 비료공장을 세워 이를 뒷받침하였다. 이와 함께 경지 정리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과 농업협동조합법 등으로 영농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다.

#### "과학 연구의 기초 수립과 근대화의 기수를 양성하다."

정부는 수출 위주의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집중적인 노력과 투자를 하였다. 1966년에 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세우고 1976년에는 대덕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과학 한국의 기초를 닦았다. 이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전자·금속·화공 등 업종별 전문연구소 설치와 함께 각종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경제개발을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과학 기술을 습득하고 교육할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에도 주력하여, 각 지역에 직업훈련원을 설치하고 기술을 교육하는 한편 각종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이를 장려하였고, 세계기능올림피에 참가하여 1977년 처음으로 우승한 이후 9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자주 국방의 길을 모색하다."

경제개발과 함께 정부의 주요 과업의 하나는 국방과 안보 문제였다.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자,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한 군사력을 자립하는 데 주력하였다. 1960년대 말 이후 중화학공업으로 방향을 선회할 때 국방군사연구소의 인원과 사원을 대폭 확대하여 무기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안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파병 등 미국과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면서도 1968년에 항모 예비군을 창설하여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자킨다'는 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다. 1971년에는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였고, 1974년에는 학도호국단을 조직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민방위대 창설하는 등 자주국방과 함께 안보 태세를 강화하였다.

#### "역사·문화 강국의 길을 모색하다."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1963년 5월에는 숭례문을 복원하였고, 1964년에는 석굴암, 1968년에는 광화문을 차례로 복원하였다. 1971년 무령왕릉을 발굴하여 고대사 이해의 지평을 넓혔고, 1972년에는 불국사와 석굴암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대대적으로 복원하는 한편 경주를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하여 보호하였다. 1964년에는 국악관현악단을 창립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면서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제정하였다. 1974년에는 아산의 현충사를 성역화하였고, 국립민속박물관과 세종문화회관을 개관하여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1978년에는 「한국사」 24권을 간행하여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사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윤리를 신설하여 새로운 교육 이념을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 "치산치수로 푸른 금수강산을 만들고, 간척사업으로 국토의 지도를 바꾸다."

1962년 4월 농촌진흥청을 발족하는 한편, 1964년에는 산림녹화 촉진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산림청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헐벗은 국토를 개조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70년대 초부터 화전을 금지하고 육림의 날을 제정하였으며, 수도권의 과밀화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를 지정하였다. 1967년에는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하였고, 1978년 10월에는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하는 등 치산과 녹화사업을 통해 국토를 금수강산으로 만들었다.

한편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대규모 간척사업을 전개하였다. 1967년 동진강 지구를 시작으로 1973년 아산만 지구와 남양만 지구, 1979년 삼교천 지구, 1981년 영산강 지구의 간척사업이 완공되어 국토의 지도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계곡과 강에 19개의 각종 댐과 수력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홍수 예방과 농업용수의 확보에도 기여하였다.

제5~9대 대통령  
**박정희** [朴正熙]  
1917.11.14 ~ 1979.10.26





# Park Chung-hee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불과 30여년 만에 세계적 무역국가로 부상할 수 있었던 초석을 다진 대통령이다. 몇 전년 대대로 내려온 기난의 사슬을 끊고 부강한 나라로 만든 대통령 혹은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 지도자, 많은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칭송한다.

하여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한 손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책자를 들고 한 손은 뒷짐을 진 채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시선은 먼 곳을 향하는 모습으로 구상하였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책자가 의미하듯 1차, 2차에 걸친 경제개발 정책이 우리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단초이기에 경제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부각하기에 충분하였으며,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먼 곳을 응시하는 모습에서 새마을 운동, 중화학 공업 육성,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수많은 정책들을 깊은 고민과 사색을 통해 민족중흥이라는 큰 역사적 사명으로 이뤄내고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외로운 지도자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청남대 개방 12주년 기념  
대한민국 역대 10인의 대통령을 만나다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崔圭夏]

1919.7.16~2006.10.22

- 1919.07 강원 원주 출생
- 1937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졸업
- 1943 만주 대동학원 정치행정학과 졸업
- 1946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
- 1948 농림부 양정과장
- 1951 외무부 통장국장
- 1957 주일 한국대표부 참사관
- 1959 외무부 차관
- 1965 제1회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 사무총장
- 1967 제14대 외무부 장관
- 1976 제12대 국무총리
- 1979.10 박정희 대통령 서거,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 1979.12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0대 대통령 선출
- 1979.12 신군부에 의한 12·12 군사쿠데타 발생
- 1980.05 5·18 광주민주화운동 발생
- 1980.08 대통령직 사임
- 1981 국정지문회의 의장
- 1991 민족사 바로 찾기 국민회의 의장
- 2006.10 서거



## ● 최규하

崔圭夏 | Choi Kyu-hah  
The 10th President(1979~1980)

최규하는 대한민국의 제10대 대통령으로 정통 각료 출신의 대통령이다. 동경고등사범학교와 만주 국립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해방 직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교단에 섰다. 이후 탁월한 영어 실력으로 미군정청 중앙식량행정청 기획과장으로 발탁되면서 공직을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농림부 양정과장이 되었으며, 이후 외무부 통상국장이 되어 외교관의 길을 걸었다. 50년대 후반에 외무부 차관, 60년대 후반에는 외무부 장관이 되었다. 대북 외교와 대미 외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서, 묵묵히 성실하게 빈틈없는 외교 업무를 바탕으로 행정부 내외의 신임을 얻어 1975년 박정희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취임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12·12 군사정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겪으며 10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유지하였다.

### “대통령 서거로 인하여 권한대행을 맡다.”

1961년 5월 이래 18년 동안 헌법을 세 차례 개정하면서까지 권력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박정희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무수한 정치적 반대세력을 양산하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으로 경제를 일으켜 대한민국 사회를 변모시킨 박정희 정부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질서를 외면하는 독재권력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유신체제에 반감을 가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10월 26일 저녁 만찬을 기해 대통령을 시해하였다. 시국은 간접을 수 없이 커다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고, 정국 수습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에 달려 있었다. 막후에서 최고 통치자를 성실히 보좌하던 최규하는 정치무대의 전면에 나서야만 했다.

### “박정희 시대, 막을 내리다.”

적은 인구와 낮은 구매력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업화가 불가능했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 수출 제품의 생산을 중시하는 수출 주도형 무역입국 성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에 연결시켜 세계 경제의 변동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자립을 모색하는 세계 여러 나라와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반공 일변도 정책의 틀을 넘어선 다면적인 외교정책 역시 필요하게 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은 1976년 3월 재야세력이 발표한 ‘민주구국선언’ 아래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978년 총선에서는 야당인 신민당이 득표율에서 제1당이 되었다. 경제 또한 1978년 이후 농정의 파탄과 제2차 석유 위기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1979년이 되자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의 불만이 분출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인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민주화는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유신헌법의 폐지와 정치적 자유의 확립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노동조합과 학생 자치조직이 잇달아 결성되었다.

### “제10대 대통령이 되다.”

10월 27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에 의거하여 새 대통령 선출과 헌법 개정 등의 일정을 시국 담화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재야와 대학생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최규하 권한대행은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단독 후보로 출마하여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2월 7일 긴급조치 9호의 해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10일에는 신현학 부총리를 국무총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를 뒤인 12월 12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주도하는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와의 연관성을 이유로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체포되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올린 체포 재가를 미루다가 이튿날인 13일 사후 승인하였다.



12월 21일 최규하 대통령은 취임식을 갖고 대통령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3일 간급조치 관련자 561명을 사면조치하고 1,330명을 석방하였다. 간급조치에 의해 학교에서 제적되었던 학생 759명이 복적되었고, 허직교수 19명도 복직되었다. 이듬해 2월에는 윤보선, 김대중 등의 야당 지도자를 비롯한 687명의 복권을 단행하였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0년 4월 전두환 합수부장이 중앙정보부장에 취임하면서 실질적인 권력자로 부상하자 전국 각지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였다.

신군부는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국회 해산을 요구하였고, 국가보위 비상기구를 설치할 것을 최규하 대통령에 강요하였지만, 최규하 대통령은 거부하였다. 5월 17일 최규하 대통령은 마지못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이를 명분으로 신군부는 5월 18일 계엄군을 동원하여 전남 광주에서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5월 27일 새벽, 전남 도청에 끝까지 남아 있던 광주시민이 계엄군에 의해 마지막으로 진압되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행정가로서의 대통령이었다. 급변하는 정국을 주도하는 정치가의 모습은 아쉽기도 보이지 못하였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민주화에 역행하는 군부의 무력 충돌도 막지 못하였다. 10개월이라는 최단기 집무 기록을 남긴 채 신군부에게 권력을 이양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 “에너지 자원외교를 펼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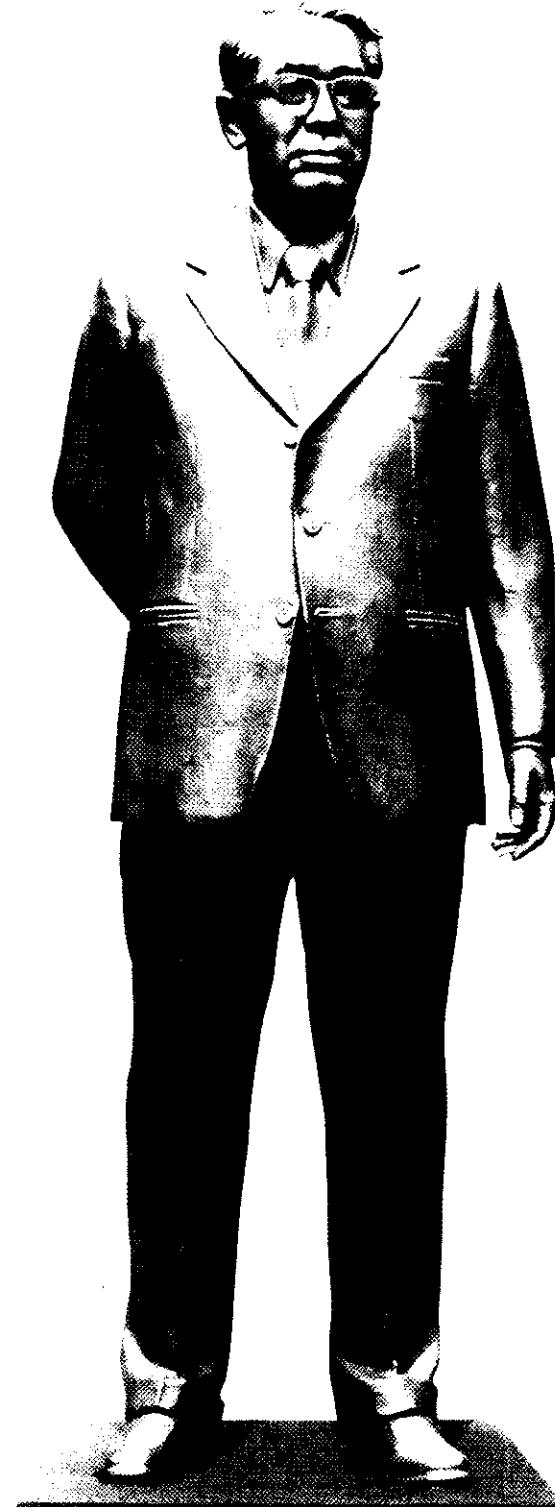
정치적 격동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최규하 대통령은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최규하 대통령은 오랜 외교관 생활과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을 지난 인물로서 그 동안 두 차례의 큰 에너지 파동을 경험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석유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1980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을 순방 하여 석유 지원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철강공업의 육성책을 마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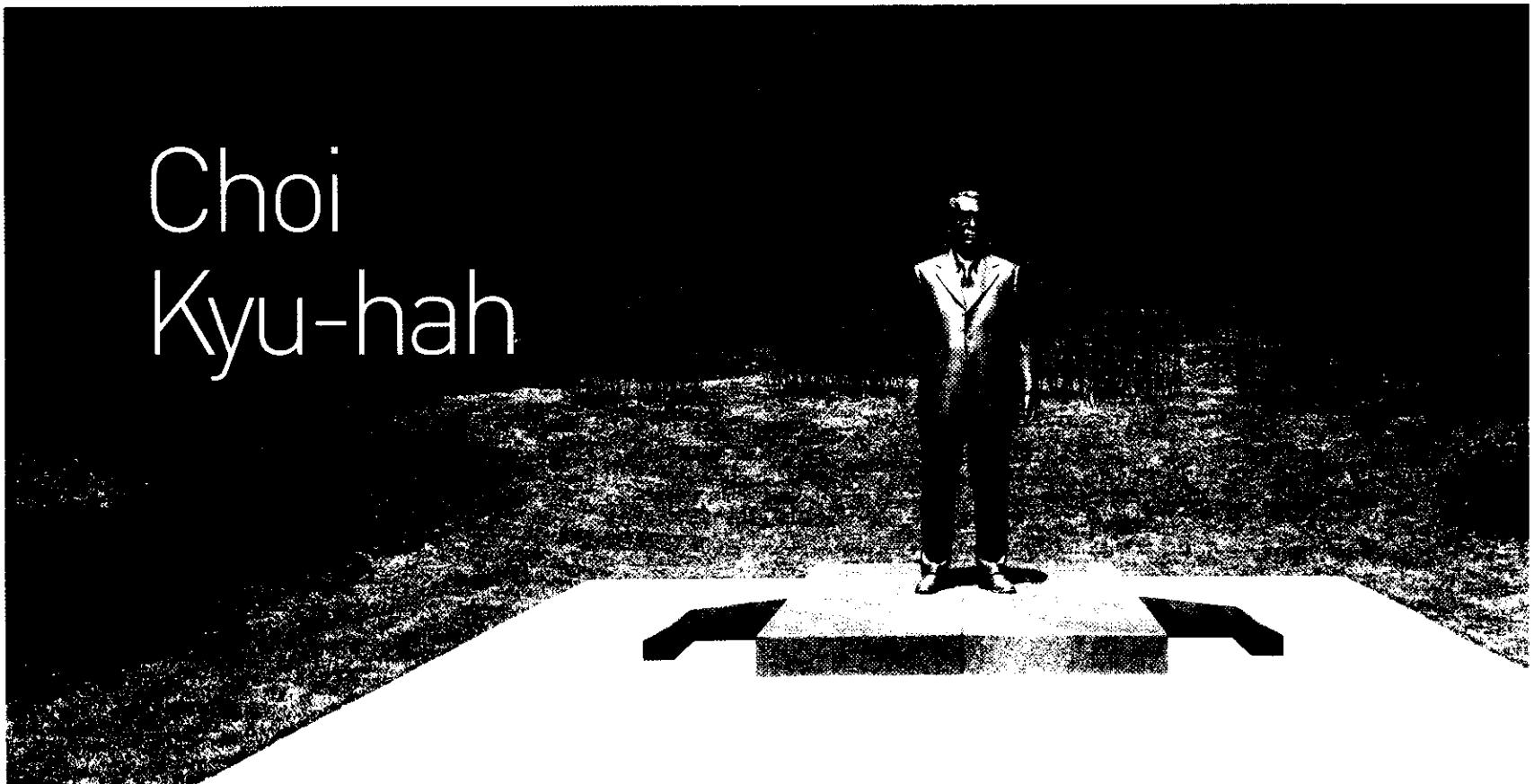
한편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한 경제개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함께 모든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산업의 육성도 중요하였다. 1973년 7월 103만 톤의 포항종합제철 1기가 준공된 이후 경제발전에 따라 철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정부는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수출을 위한 철강 생산을 추진하였다. 이에 1980년 1월 철강공업 육성법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비를 증강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정권의 교체 때문에 재대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1980년대에 와서 포항종합제철이 본격적으로 철강 증산을 위해 설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 정부는 1980년 3월 과천 신도시 건설을 시작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崔圭夏]

1919.7.16~2006.10.22



# Choi Kyu-ha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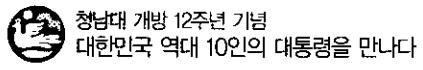
다 수의 사람들이 최규하 대통령은 위기관리형 대통령이라고 한다.

10·26이후 극도로 혼란한 안개정국에 탁월한 행정 관료의 자질을 발휘하여 과도기 성부의 위기를 잘 넘겼기 때문이다.

최규하 대통령은 주일 대표부 총영사로 시작하여 주일 대표부 공사, 외무부 차관, 외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거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선출된 분이다.

외면하고 싶은 역사의 순간 순간을 두발로 서서 당당하게 마주하며 험난한 위기에 대응하는 지도자의 면모를 살려내기 위해 육중한 양감으로 당면한 역사의 무게를 상징하였고, 옆으로 살짝 돌린 얼굴에서 바라보기 힘든 역사의 현장에 깊은 고민과 뿐미를 은유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짧은 재임기간에 눈에 띠는 업적을 쌓을 수 없었으나 국가 존망이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고모나무 처럼 광풍에 묵묵히 맞서 슬기롭게 극복한 지도자상을 만들고자 했다.



제11~12대 대통령  
**전두환** [全斗煥]

1931.1.18 ~



- 1931.01 경남 합천 출생
- 1955 육관사관학교 11기 졸업
- 1961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민원비서관
- 1963 하나회 창설
- 1979.12 12·12 군사쿠데타로 집권
- 1980 국가보위법위원회의 상임위원장
- 1980.09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
- 1980.10 7년 단임제 확정(제8차 헌법 개정)
- 1981.02 대통령 선거인단, 제12대 대통령 선출
- 1983.09 대한항공 여객기 소련 영공에서 격추
- 1983.10 베마 이옹산 폭발사건 발생
- 1986.05 5·3 인천시위 발생(직선제 개헌 요구)
- 1987.0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발생
- 1987.04 호헌조치 생방송 발표
- 1987.06 6·10 민주항쟁 전개
- 1987.10 대통령 직선 및 5년 단임제 개헌(제9차 헌법 개정)



## ● 전두환

全斗煥 | Chun Doo-hwan  
The 11th~12th President(1980~1988)

전두환은 대한민국의 제11~12대 대통령이다. 박정희에 이어 두 번째로,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었다. 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 11기 생도 가운데 남다른 친화력과 리더십을 지니고 있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지지하는 육사 생도 800여 명의 시기행진을 주도하였으며 수도경비사령부 제30대대장 복무 당시 1968년 1월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일당을 일망타진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백마부대 연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으며, 제1사단장 시절인 1978년 10월에는 휴전선 부근의 남침용 땅굴을 발견하여 5·16민족상을 수상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각별한 총애를 받아 대한민국 군대를 이끌어나갈 핵심인물로 성장하였다.

### “정치 일선에 나서다.”

1979년 10월 26일에 일어난 박정희 대통령 사해 사건은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정치무대에 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육사 11기 가운데 영남 출신을 모아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조직하여 이끌고 있던 전두환은 사해 사건 직후, 보안사령관 직권으로 대통령 사해 사건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0월 27일 오전, 중앙정보부 차장,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핵심 책임자를 모두 보안사령부로 소집하였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각 권력 기관의 책임자들을 합동수사본부에 배속시켜 능숙한 솜씨로 자신의 휘하에 두었다. 오랜 기간 군에서 단련된 조직가로서의 업무처리 능력의 결과였다.

### “김재규 수사와 12·12 군사정변을 주도하다.”

전두환은 허화평 등에게 오랫동안 5·16 군사정변의 과정을 면밀히 연구하도록 하고 있었다. 국가적 위기에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대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안전하게 보유해야 할 군인으로서의 사명이라고 확신하였다. 김재규에 대한 치밀한 수사를 바탕으로 하여, 대통령 사해 사건의 첫 공판은 12월 4일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법정에서 열렸다. 12월 12일, 하나회를 주축으로 한 신군부는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김재규와 연관되어 있다는 혐의를 두어 체포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획득하였다.

### “제11대 대통령이 되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정변으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요구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 163명, 행방불명 166명, 부상자 3,139명이 발생하였다.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희생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핵심인사들에게 있어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무엇보다 집권의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그는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하는 한편 사회통합과 국제적 신뢰 회복을 위해 스포츠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 “세계의 스포츠 무대에 서다.”

무엇보다 세계적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1981년 9월 서울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1986년 9월에는 서울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대회에서 성적도 두각을 나타내어 1982년 9월에는 세계야구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였고, 1983년 6월에는 청소년축구대회에서 4강에 진출하였으며, 1985년 11월에는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1982년 프로야구 출범을 시작으로 프로 축구와 민속씨름 등 여러 스포츠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프로 스포츠 시대를 열었다.



### “사회와 문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다.”

1980년대에 오면서 사회와 문화 분야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언론 통폐합 등 강압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컬러TV 방송이 시작되었고, 야간 통행금지 해제와 중고생 교복과 두발 자율화가 시행되었으며,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자율화되었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기도 하였다. 1986년에는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었고, 1988년에는 국민연금제가 실시되어 새로운 복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7년에는 전화가 완전 자동화되었다. 그리고 예술문화 시설을 확충하여 예술의전당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독립기념관을 개관하였고, 국어 문법 통일안으로 한글의 통일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 “경제의 버팀목을 굳건히 지킨다.”

이 시기 경제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외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980년대 중반 이후, 긴축정책과 원유가 하락 및 금리의 하락 등 ‘3자 협상’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특히 정부는 이전 정권의 경제정책을 이어받아 새로운 분야의 성장을 이끌었다. 자동차와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옥포조선소와 한국중공업을 준공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웠다. 그 결과 1983년 8월에는 삼성반도체가 64킬로바이트 D램을 생산하고 1986년에는 1메가 D램을 개발함으로써 반도체 강국을 향해 성큼 나아갔다. 정부는 변화된 국제무역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수출산업 기지를 외국에 마련하여 1982년 미국에 컬러TV 공장을 준공하였고 1986년에는 포니 엑셀을 미국에 수출하여 자동차 강국의 기초를 쌓았으며,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수주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한미섬유협정을 맺고 서울 국제무역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을 위해 세계 속으로 한층 더 나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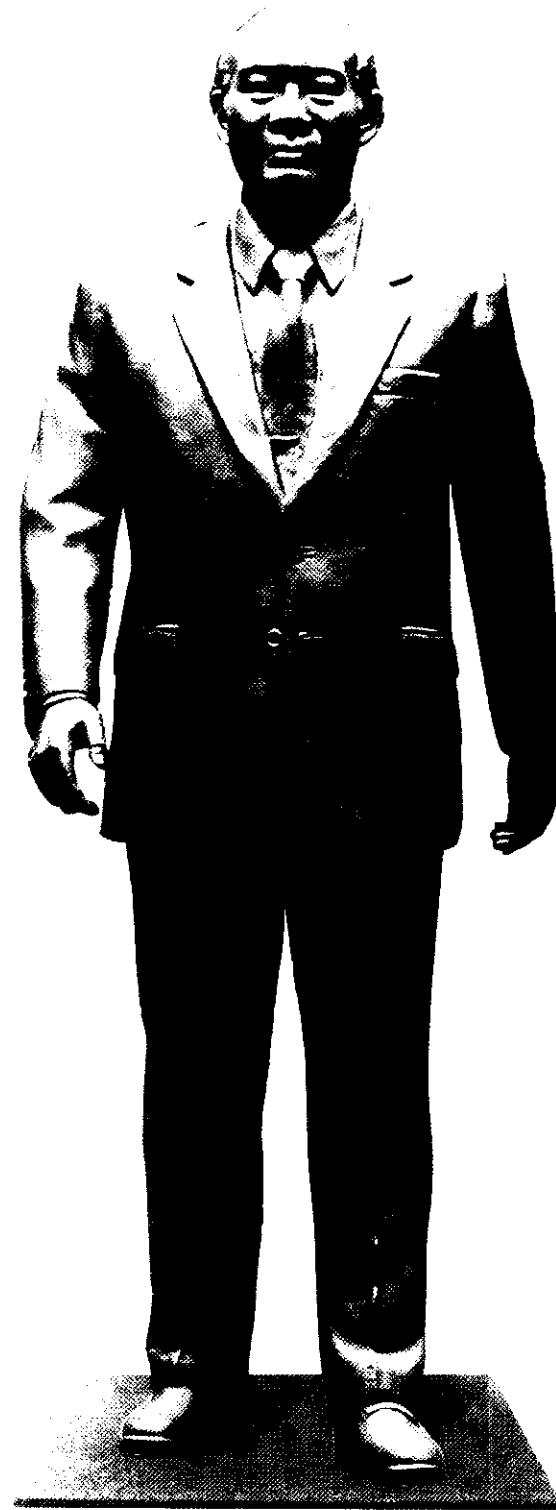
### “세계와 교류를 모색하다.”

전두환 정권은 스포츠를 통해 세계무대와 교류하는 한편 정상 외교를 통해서도 국제 사회와 교류하였다. 이것은 정권의 정통성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1984년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일본을 방문하였고, 1983년 레이건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1985년에는 미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하였다. 한일의원연맹으로 국회의원 사이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1985년에는 IBRD-IMF 총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노력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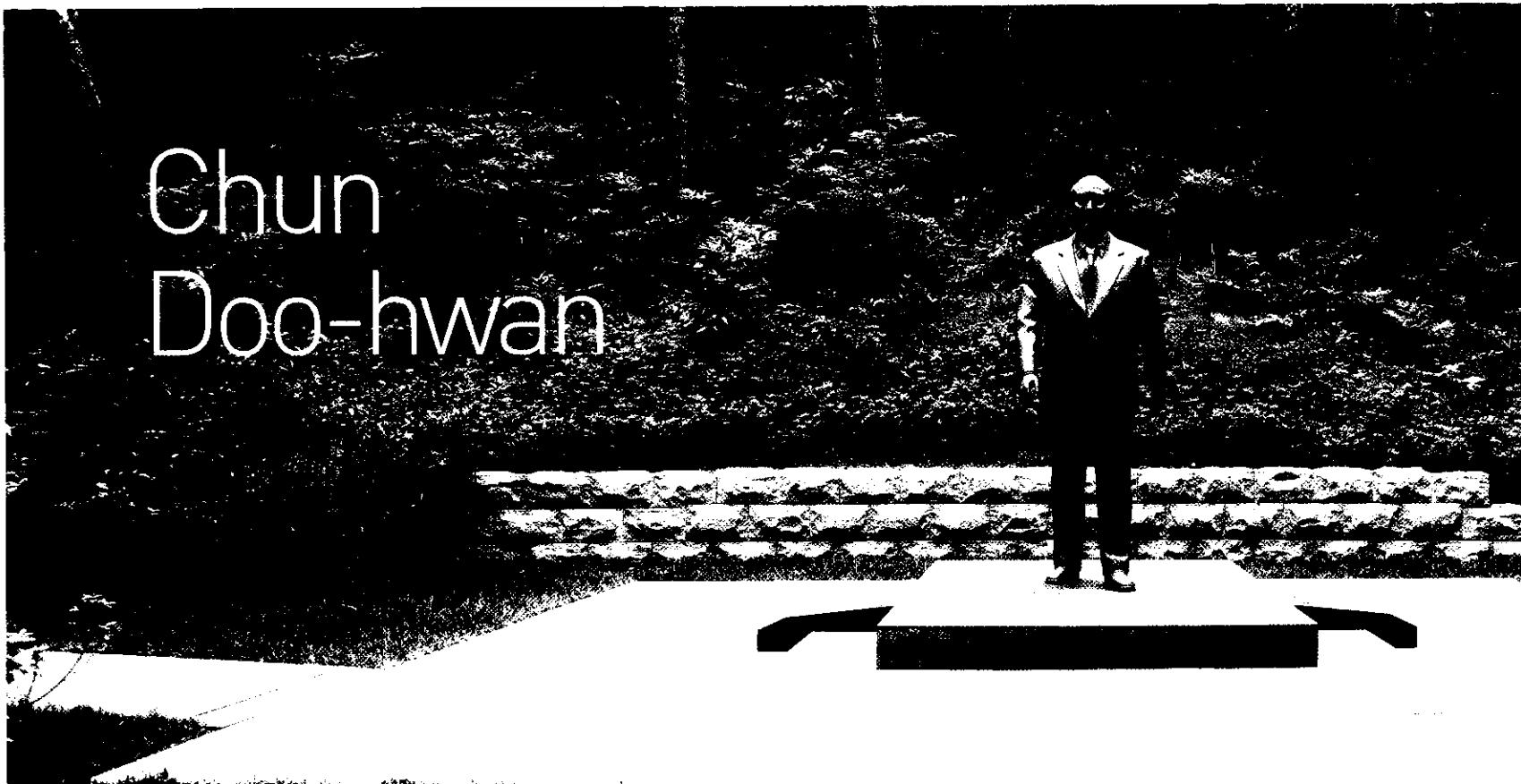
### “국토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다.”

1981년 영산강 하구언 공사 준공을 시작으로 각종 건설사업을 통해 국토의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1984년 6월 88올림픽 고속국도가 개통되었고, 1981년 지하철공사를 발족한 이후 1985년에는 부산에 지하철이 처음 개통되었다. 충주 다목적댐을 준공하고 한강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올림픽대로와 중부고속국도를 건설하여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1985년에는 63빌딩을 준공하여 새로운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들었다. 이외에도 1983년 6월 남북 아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실시하였고, 남북 교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을 추진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제11~12대 대통령  
**전斗환** [全斗煥]  
1931.1.18~



# Chun Doo-hwan



**전** 두회 대통령은 의리를 중시하는 보스형 대통령으로 불린다.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을 가졌던 군 출신의 대통령으로 국가적 혼란기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무리와 억압이 있었으나 국가의 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고 경제성장을 시속시켰다. 또한 경제 각료 기용을 잘해 인사에 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막강한 권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소탕과 사회 안정에도 힘을 썼다. 86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고 88 올림픽을 유치하게 하였으며, 아간 통행금지 해제, 해외여행 자유화 등 국민들 생활과 사회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전두환 대통령을 표현하기 위해 낭낭하게 암만 보며 흔차게 걸어가는 자세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거침없는 통치 스타일을 한축적으로 나타내기에 적합한 자세이다.

동상의 위치가 조용한 산비탈이라 숲 속에서 산 능선을 타고 힘있게 걸어 내려오는 모습은 전두환 대통령의 낙성적인 힘과 역동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했으며 주변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어 생동감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청남대 개방 12주년 기념  
대한민국 역대 10인의 대통령을 만나다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盧泰愚]

1932.12.4~



- 1932.12 대구 출생
- 1955 육군사관학교 11기 졸업
- 1982 제41대 내무부 장관
- 1983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 1985 제12대 국회의원
- 1987.06 6·29선언 발표
- 1987.12 제13대 대통령 당선
- 1988.09 제24회 서울 하계올림픽 대회 개막
- 1989.08 자주·평화·민주 방식의 통일 3대원칙 발표
- 1990.01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 3당 통합 선언
- 1990.0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공포
- 1990.09 남·북한 첫 총리회담 개최(서울)
- 1990.12 소련 방문, 모스크바 선언 발표
- 1991.09 남·북한 유엔 회원국 동시 가입
- 1991.12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발표
- 1992.06 경부고속철도 기공식
- 1992.08 한국 최초의 과학위성 우리별 1호 발사 성공
- 1992.08 중국과 수교



## ❖ 노태우

盧泰愚 | Roh Tae-woo  
The 13th President (1988~1993)

노태우는 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이자 40년 만에 다시 부활한 직선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다.

육군사관학교를 11기로 졸업하였으며, 전임 전두환 대통령과 육사 동기이다. 전두환 대통령과는 12·12 군사정변과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함께 참여하였다. 전두환 정부에서 체육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1987년에는 집권 민주정의당 총재를 지냈다.

### “1987년 민주화 운동”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대한민국 사회는 또 다시 강권 통치가 지속되었지만, 생활 향상에 따라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한 국민의 의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 일변도 정책은 이미 전두환 정부 후기 때부터 서서히 바뀌어 갔다. 1984년 9월 전두환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관계의 강화를 도모하고 제2차 석유 위기 후의 경제 혼란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산업구조 개편을 목표로 두었다.

이에 병행하여 국내 규제의 완화 조치가 취해졌으며, 1984년의 학원 자율화 조치가 뒤따랐다. 이로써 다시 대학생과 재야 및 야당은 사회 민주화를 요구하는 청원과 시위를 재개하였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국민들은 분개하였다. 사회 민주화 요구와 더불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들끓자 전두환 대통령은 4월 13일 TV 연설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더욱 커다란 반발을 초래하였다.

마침내 6월 10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열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마지못해 국민들의 요구를 6월 29일 수용하였다. 이른바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표의 6·29 선언에 의해 대통령 직접선거가 실현되었고 정치 민주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다.”

김대중, 김영삼, 백기완 등과 같은 야당 및 재야 지도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가운데 여당 후보인 노태우는 전임 전두환 대통령의 강압적 이미지와는 다른 ‘부드러운 보통 사람’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선전하였다. 노태우는 배제와 억압이 아닌 태협과 수용의 자세를 갖춘 새로운 지도자로 국민에게 각인되었으며, 마침내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집권 직후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 권리와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정책을 실행하였고 더불어 전임 정부와 더욱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민주화협진위원회를 설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조사하였다.

### “북방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다.”

1980년 후반에는 동서 냉전 체제가 점차 화해의 물꼬를 트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대변화가 시작되었고,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여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주의를 수정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것을 계기로 북방 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다. 1989년 1월 평가리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수교하였고, 1990년 10월에는 공산권의 맹주국이었던 소련과 수교하였다. 1992년 8월에는 한국전쟁 때 우리에게 큰 아픔을 안겨주었던 중국과도 수교하였다.

정상 외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90년 12월에는 한·소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1991년 4월에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방한하였으며, 1992년 11월에는 옐친 소련대통령이 방한하기도 하였다.



###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트다.”

정부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 화해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1990년 9월 종리를 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것을 필두로 남북 통일축구 대회와 범민족 통일음악회를 열어 오랫동안 대립하던 분위기를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니나야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도 남북이 하나라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내세우면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였다.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 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고, 1991년 4월에는 남북 단일 여자탁구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것은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어서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였고, 정부는 흥명희 등 월북 작가의 작품을 해금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 “올림픽의 성화가 불타오르다.”

5공화국은 사회통합과 국제적 신뢰 회복을 위해 스포츠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올림픽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1981년 9월 서울 유치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국제 스포츠 행사를 적극 유치하는 데 힘써 1986년 9월에는 아시아경기내회를 개최하였고, 1988년 9월에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마스코트인 ‘호돌이’가 서울 한 복판에서 즐겁게 춤을 추는 등 세계인이 하나가 되어 경쟁과 화합하는 공간이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체육부 장관과 올림픽 준비위원회를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올림픽 개최는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인에게 새롭게 각인시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한국의 국제위상이 높아지고, 자유화의 바람이 불다.”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88년 10월 유엔에서 대통령 연설을 하였고, 1991년 남북한이 농사에 유엔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1995년에는 유엔 비상임이사국에도 진출하여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는 동시에 유엔 평화유지활동에도 참여하여 위상과 역할을 더욱 높여갔다. 1980년대 후반에는 자유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1988년 3월 해외여행 자유화가 실시되었고, 12월에는 은행 금리가 자유화 되었으며, 1991년 1월에는 정보통신·포도주·여행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해외 어학연수와 유학이 확대되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다가올 세계화 시대를 준비하였다.

### “광속의 시대를 준비하다.”

1990년대 한국 사회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1992년 6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초고속 경부고속철도(KTX)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이것은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국도를 뛰어넘어 우리 국토를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화시키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1989년에는 인천 영종도에 신국제공항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 허브 공항을 구축하였고 1992년에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여 무선통신의 시대를 열었으며 최초의 과학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발사함으로써 우주 강국의 길을 모색하였다.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盧泰愚]  
1932.12.4~





**노** 대우 대통령은 낙방외교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라며 스스로 보통사람을 자처하였지만 보통사람 이상의 특별한 치적을 쓴은 지 도자였다. 낙방외교로 소련, 중국 등 여러 공산국가와 수교를 맺어 국가안보 체계를 공식화 했다.

88 올림픽 성공으로 국력을 신장시키고, 서해안 고속도로 및 KTX 건설을 계획하여 국토의 대동맥을 확장하고, 일산, 분당 등 5개 신도시를 동시에 건설하여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였다.

새마금 및 대불공단 조성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인천국제공항 계획은 세계화의 통로에 초석이 되었다. 남북한 기본협의서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고, 서해안 교전을 승리로 이끌어 안보를 튼튼히 하였다. 또한 범죄와의 선쟁으로 사회질서를 확립한 대통령이었다.

노대우 대통령은 비교적 조용하면서도 지도사로서의 할 일을 해나가는 분이셨으므로 조용히 한 발을 앞으로 내딛으며 미래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자세로 모든 업적을 합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청남대 개방 12주년 기념  
대한민국 역대 10인의 대통령을 만나다

12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金泳三]

1927.12.20~



- 1927.12 경남 거제 출생
- 1947 서울대 문리대 철학과 입학
- 1951 장택상 국회부의장 비서관으로 정계 입문
- 1954.05 제3대 총선, 거제에서 만 25세로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
- 1974.08 신민당 총재 선출
- 1975.05 박정희 대통령과 영수회담, 민주화 강력 촉구
- 1981.06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의 모태 민주산악회 발족
- 1983.05 민주화를 위한 무기한 단식투쟁(23일간)
- 1987.05 통일민주당 창당
- 1989.06 한국 정치인 최초로 소련 방문
- 1992.12 제14대 대통령 당선
- 1993.05 역사바로세우기 관련 특별담화 발표
- 1993.08 금융실명제 실시
- 1995.01 세계화 추진위원회 출범
- 1995.08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 1996.10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등 세계기록유산으로 정식 등재
- 1996.12 OECD 가입
- 1997.11 IMF 구제금융 공식 요청



## ◆ 김영삼

金泳三 | Kim Young-sam  
The 14th President (1993~1998)

김영삼은 대한민국의 제14대 대통령이다. 1961년 이래 31년 만에 야당 정치인으로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28세의 나이로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제3대 국회의원에 선출됨으로써 현정 사상 최연소 의원이 되었다.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흡 번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줄곧 박정희 유신 정부의 독재 정치에 반대하는 야당의 지도자였다.

야당 지도자로서의 김영삼이라는 이름을 국민에게 각인시킨 결정적인 사건은 1979년 NH여공들의 신민당 청사 점거농성과 김경숙 양의 추락사망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문제 삼은 여당 의원들은 여당만의 단독 행동에 의해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였다. 그러자 김영삼의 주된 지지 기반이 경남지역의 민심이 흔들렸고,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부마 사태로 인하여 김영삼은 국민적 정치지도자로 각인되었다.

###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다.”

1987년 12월 야당의 단일화 실패에 의해 김영삼은 대권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였다. 1990년 1월, 커다란 정치적 모험을 감행하였다.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려는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제2야당으로서의 지위를 넘어서려던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던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당에 성공,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 여당이 출범하였다. 김영삼은 민주자유당 대표로서 차기 대권을 획득하기 위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었다. 1992년 노태우의 후계자로 지명된 박철언과의 대선 후보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김영삼은 여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다.”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김영삼은 1993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5·16 군사정변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한 민간정부였다. 새 정부는 도덕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사정활동으로 비리와 부정을 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첫 번째 조치는 1993년 8월에 실시한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었다.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이어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여 도덕적으로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경제적으로 투명한 사회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였다. 은행의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는 이 조치는 금융시장의 위축과 소규모 사업자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경제개혁의 기초를 닦고 투명한 경제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1996년에는 이자와 배당 소득이 부부 합산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과세하는 법을 만들어 소득의 투명화와 공평 과세를 어느 정도 추진하기도 하였고, 1997년 6월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권에 대한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다.”

집권 초기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해외에서 숨진 박은식과 서재필 및 전명운 등 애국지사들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와 국립묘지에 안장하였고, 1993년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면서 4·19 묘역을 성역화 하였다. 1995년에는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정부중앙청사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던 옛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를 발표하여 1996년 11월에 이를 완료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자 하였다. 이것은 친일파 청산이 실패한 현실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상징적 의미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 운동 때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처음으로 관민이 합동으로 추모식을 거행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도 하였다.



### “세계 속으로 한 걸음, 세계화를 추진하다.”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새로운 국정 목표를 제시하였다. 1995년 1월 세계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보다 앞서 1993년 12월에는 수년 동안 진행하던 우루과이리운드 협정을 타결하였다. 보호무역주의 경제를 철폐하는 이 협정은 국제경쟁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에 피해를 가져온 것이었지만, 정부는 상품·금융·건설·유통·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시장을 세계에 개방하였다. 1993년 8월 대전 엑스포를 개최하고 1994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한편, 더욱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1996년 9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시장개방 정책에 맞추어 낙후된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화를 추진하였다. 1995년 10월에는 처음으로 수출 1천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무역여조의 심화와 경제성장의 둔화로 임기 말에는 IMF사태를 맞기도 하였다.

### “민선 자치시대가 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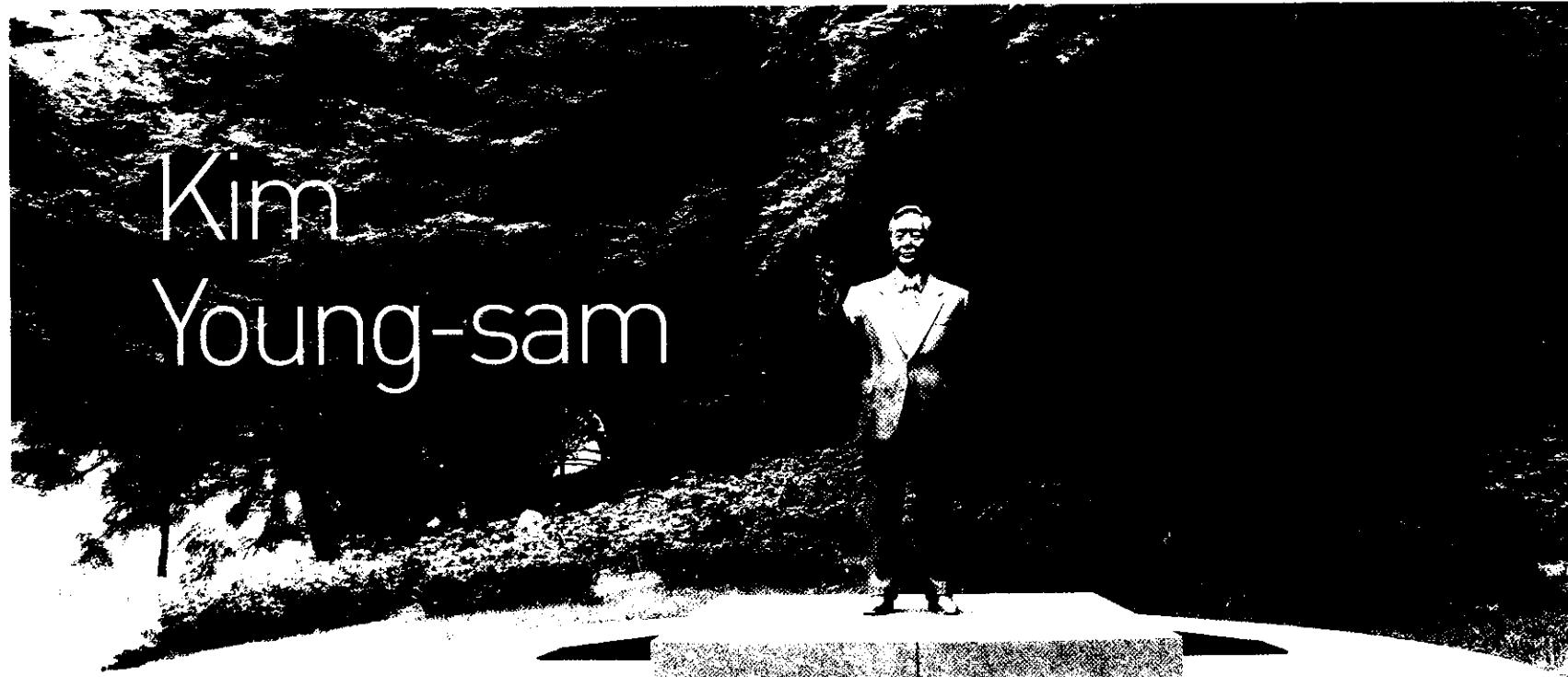
노태우 정부는 5·16쿠데타로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 만인 1991년 3월에 구·시·군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6월에는 시·도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자치 선거를 부분적으로 부활시켰다. 이어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1995년 6월 노태우 정부가 보류하였던 서울시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포함한 지방자치 선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도지사·시장·구청장·군수 등 245명이 주민의 투표로 직접 선출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 역사상 ‘민선자치시대’가 다시 출범되었다. 이로써 국민들의 의사가 한층 반영된 민주주의의 길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 “한국의 위대한 유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다.”

문민정부 시대에는 역사 문화면에서 우리나라의 국격과 브랜드 가치가 한승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유네스코는 세계의 다양한 유형·무형의 유산을 선별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들이 등재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12월 불국사와 8만대장경 및 종묘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1996년 10월에는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성음이 등재되었으며, 이후에도 많은 문화재가 등재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993년 10월에 국립중앙박물관을 새로 건립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하였고, 1994년 9월 백제문화권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金泳三]  
1927.12.20~





# Kim Young-sam

작가는 그를 결단의 대통령이라 부르고 싶다.

오랜 민주화 투쟁을 거쳐 오면서 개혁의지를 불태워 온 정치인으로서 군사부 청산을 위해 군부 내의 사조직인 해나회를 괴롭히며 처결하여 정치에 군인이 관여하는 길을 원천봉쇄하여 문민정부를 굳건히 탄생시킨 대통령이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자하경제를 치단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월드컵을 유치하여 촛날 4강 신화를 이루어 국민들의 자신감을 고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역사를 바꿀만한 업적들은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집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연설 중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은 '확실히 개혁하겠습니다.'였다. 당당하게 두 발로 서서 오른 손에 힘을 주어 투시처럼 허공을 가르는 흔드는 그 모습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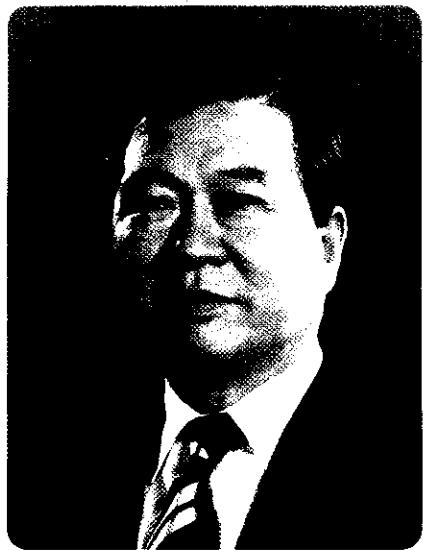
이 한 모습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으나 국민들의 뇌리에는 응변하듯 사자수를 토이던 그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나이를 기능할 수 없을 정도의 동안에 조깅으로 단련된 탄탄한 몸매를 표현하는 데 중심을 두었다.



청남대 개방 12주년 기념  
대한민국 역대 10인의 대통령을 만나다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金大中]

1926.1.6 ~ 2009.8.18



- 1926.01 전남 신안 출생
- 1943 목포공립상업학교 졸업
- 1963.11 제6대 국회의원 당선
- 1967.06 제7대 국회의원 당선
- 1976.03 3·1 민주구국선언 참여
- 1987.10 조지미니인권상(미국 산별노조총연맹) 수상
- 1987.11 평화민주당 창당
- 1995.09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 1997 제15대 대통령 당선
- 1998.06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 소 500마리와 함께 방북
- 1998.11 금강산 관광여객선 첫 출항
- 2000.03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서울포럼 개최
- 2000.06 남북정상회담 개최(분단 이후 최초)
- 200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 2000.12 노벨평화상 수상
- 2001.01 여성부 신설
- 2001.08 국제통화기구(IMF) 지원자금 195억불 전액 상환
- 2002.05 2002 한일 월드컵 개최
- 2009.08 서거



## ● 김 대 중

金大中 | Kim Dae-jung  
The 15th President [1998~2003]

김대중은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목포상업학교를 졸업한 뒤에 1943년 전남기선주식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취직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동양해운을 차려 해운업을 시작하였고, 목포신문사를 인수하여 사장이 되었다.

김대중은 무엇보다 기업인이었다. 그렇지만 그를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빼어난 정치인으로 만든 것은 불의와 부패로 점철된 우리 역사 자체였다. 죽음의 위협을 다섯 번이나 극복하고 40여 년간 대권에 도전하여 마침내 1997년 12월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된 그의 별명은 '인동초'다.

### "햇볕 정책으로 남북화해의 손을 잡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정책 기조로 삼았으며, 이전의 정부와 달리 화해와 협력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였다.

1998년 6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몰고 만문점을 거쳐 북한에 방문하였고, 10월에도 501마리의 소와 20대의 자동차를 몰고 방북하였다. 이어 11월에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성사되어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장진항을 향해 출발하였다. 이렇게 민간교류의 물꼬가 터지면서 민간인의 방북도 증가하였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였다.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고, 15일에는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고, 이후 민간인 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000년 9월에는 경의선 철도와 도로 기공식을 거행하고 그동안 끊어진 남북의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기 시작하여 2006년 3월에 준공하였다. 이어서 이산가족 상봉과 통일 음악회는 물론 남녀 농구팀의 경기를 비롯하여 평양 학생소년예술단의 공연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9월에는 시드니 올림픽에 남북이 동시에 입장하는 등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었다.

### "월드컵, 한국인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주다."

2002년 5월과 6월 한국 국민들은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한일 월드컵이 개막되어 세계의 눈이 서울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 국민들은 1998년 1월 IMF를 극복하기 위해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세계인에게 한국의 새로운 각오와 모습을 보여주었고, 2001년 8월에는 IMF기금을 조기 상환하였다.

이어 2002년 5월에 시작된 50억 치구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한국의 저력이 다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대표팀은 32강을 넘어 처음으로 4강까지 진출하여 온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고, 시민들은 '붉은 악마'의 조직적인 응원과 함께 붉은 셔츠를 입고 길거리에서 응원전을 펼쳐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6월 22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스페인과 승부차기의 승리는 벽찬 감격과 함께 사회통합의 기운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9월에는 부산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마련하다."

정부는 집권 이전에 맞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1998년 당시 -6.9%의 성장을 기록한 경제는 1999년에는 9.5%의 성장을 보였고, 경상 수지는 2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정부는 1999년부터 브레이인 코리아(BK 21)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 8월부터 IT산업(정



보), BT산업(바이오), CT산업(콘텐츠), NIT산업(나노) 등에 대한 발전전략을 구상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갔다.

그리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생명공학연구센터를 비롯하여 한국나노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사회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분야의 연구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세워 새로운 분야의 진흥을 모색하였으며, 전교적인 평속 통신망을 구축하여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오늘날 세계 제일의 인터넷 강대국이 되는 초석을 놓았다.

#### **“민주화에 바친 일생, 한국인 최초 노벨상을 수상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인물이었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결국 수평적 정권교체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세계의 인정을 받아 1998년 6월 유엔 인권상을 수상하였고, 2000년 9월에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였다. 그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 회복법을 제정하였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전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가치와 신념을 보여주었다. 2000년에 오면서 남북관계는 국적인 전환을 맞이하여 6월 15일에 남북성상 회담과 함께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민간 교류와 협력으로 남북 회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2000년 12월 10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노벨상을 수상한 것으로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뜻 깊은 일이다.

#### **“복지제도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상생과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9년 4월에는 1988년에 실시되었던 국민 연금제를 확대 실시하였고, 2000년 10월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소외된 어려운 기정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1999년에는 의약분업을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2000년 1월에는 서음으로 여성부를 신설하여 여성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였다. 한편 1998년 2월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2001년 7월에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였고, 11월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설치하여 범죄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정보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였다. 이어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국가적 기록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전교조를 합법화하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고자 하였다.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金大中]  
1926.1.6 ~ 2009.8.18





**민** 주화의 대명사처럼 한국 정치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지도자로 오랜 세월 야당 지도자로서 숱한 가시밭 길을 걷어온 정치 풍운아이기도 하다.

남북문제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남북이 분단된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이산가족에 대한 희망을 고조시켰나. 집권 초기부터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남북 정상회담, 한일 월드컵 개최, 내승문화 개방 등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한국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여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민주화 과정에서 수난을 겪어 불면한 몸을 의지하고 있는 시팡이 하나로 대통령의 전체 이미지를 대변하고자 했다. 평소 고민 속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기를 즐겨 했으며, 남북 정상회담 때 시팡이를 짚고 손을 흔들던 모습은 김대중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단순하게 외투를 입혀 넉넉한 대통령의 후덕함과 화해와 용서의 덕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시팡이의 강한 이미지를 대비시켜 외유내강의 지도자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청남대 개방 12주년 기념  
대한민국 역대 10인의 대통령을 만나다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盧武鉉]

1946.8.6~2009.5.23

- 1946.08 경남 김해 출생
- 1963 부산상고 입학
- 1975 제17회 사법고시 합격
- 1977.09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부임
- 1978.05 변호사 개업
- 1981.10 부림사건 변론을 맡음
- 1988.04 제13대 국회의원 당선
- 1993 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 당선
- 1997.11 새정치국민회의 입장
- 2000.08 해양수산부 장관 취임
- 2002.12 제16대 대통령 당선
- 2003.10 제주 4·3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 공식사과
- 2004.03 대통령 탄핵 소추
- 2005.0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포
- 2007.04 한미FTA 협상 타결
- 2007.10 제2차 남북정상회담 타결
- 2009.05 서거



## ● 노무현

盧武鉉 | Roh Moo-hyun  
The 16th President(2003~2008)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며, 57세의 나이로 당선되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젊은 대통령이었다. 그는 스스로 서민 대통령이길 바랐으며,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만연한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대통령이란 국민 위에서 제왕처럼 군림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또 이웃이자 벗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청와대 개방과 격의 없는 국무회의 주재, 그리고 평검사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고, 서울로 집중된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권력을 나누는, 이를바 '분권'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다소 깊은 우려를 보낸 이들도 있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21세기를 맞이한 대한민국 사회에 부응하는 신선한 바람으로 여겼다.

### "국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다."

노무현은 대선의 라이벌이었던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취임과 동시에 '참여 정부'를 표방하였다.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2004년 4·15 총선을 계기로 힘을 얻은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을 적극 추진하였다. 행정수도를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기고 국가의 주요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다. 2004년 1월 국가균형 발전법과 지방분권 특별법을 제정하였는데, 특히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되면서 여론의 거센 반발을 받았으나, 결국 2005년 3월에 행정수도 대신에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바뀌어 추진하였다. 2005년 6월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확정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방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으나,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시적도 받았다.

### "세계 무대를 향해 성큼 걸어가다."

노무현 정부에 와서 경제 상황은 양호하여 4~5%대 성장률을 보였고 2007년 12월에는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다. 정부는 세계의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4년 2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2007년 4월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으로 농촌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으나, 새로운 경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2005년 11월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2006년 12월에는 반기문 외무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하면서 한국의 국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역할도 증가하여, 2003년 4월에는 이라크에 공병부대와 의료부대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 "도덕적이고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다."

노무현 정부가 사회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투명한 사회 분위기의 조성이었다. 2003년 10월에는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실시하여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2005년 12월에는 사립학교법을 제정하여 투명한 학교 운영을 추구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성과 함께 도덕성이 고위 관료의 필수 조건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독립 및 사법제도의 개혁으로 권력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였고, 2006년 4월에는 처음으로 여성 국무총리를 임명하여 양성 평등사회를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 한편 '전자 정부'를 표방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출범되었다. 2006년 2월에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e지원)을 개발하였고, 행정 정보의 공유 확대, 범정부적 통합전산망 구축,



통합 인사 관리시스템 구축 등 '공개와 공유'를 위한 31개 과제를 진행하였다. 특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제정하고 기록물 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공공 기록물에 대한 투명성과 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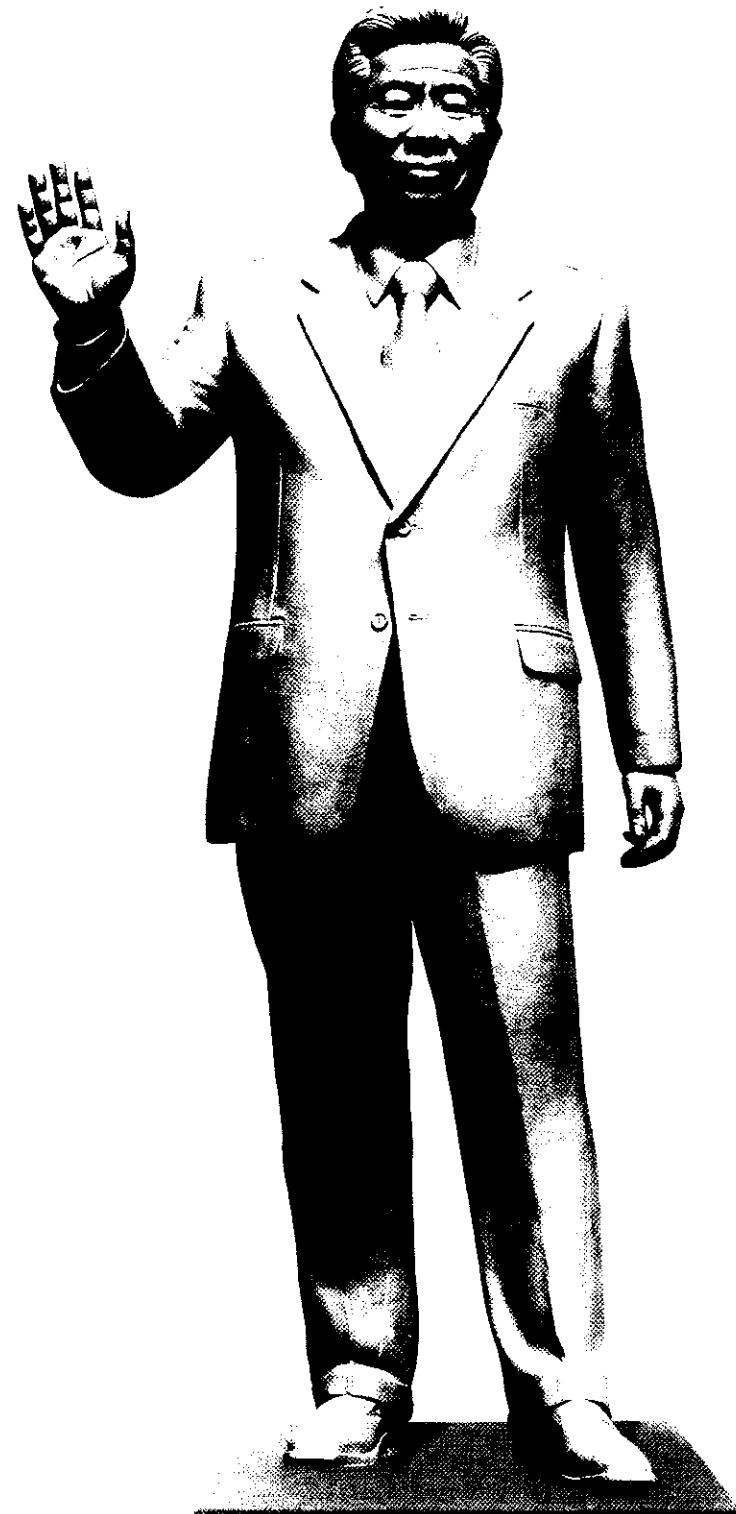
**"진실의 눈으로 아픈 역사와 화해하다."**

노무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중의 하나는 아픈 역사를 청산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이었다. 2003년 10월 제주 4·3사건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였고, 2004년 3월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 규명법을 제정하여 모두 301명의 친일파에 대한 조사와 함께 과거사 청산을 추진하였다. 2005년 5월에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동안 친일파 청산이 실패한 현실에서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인물과 관련 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재조사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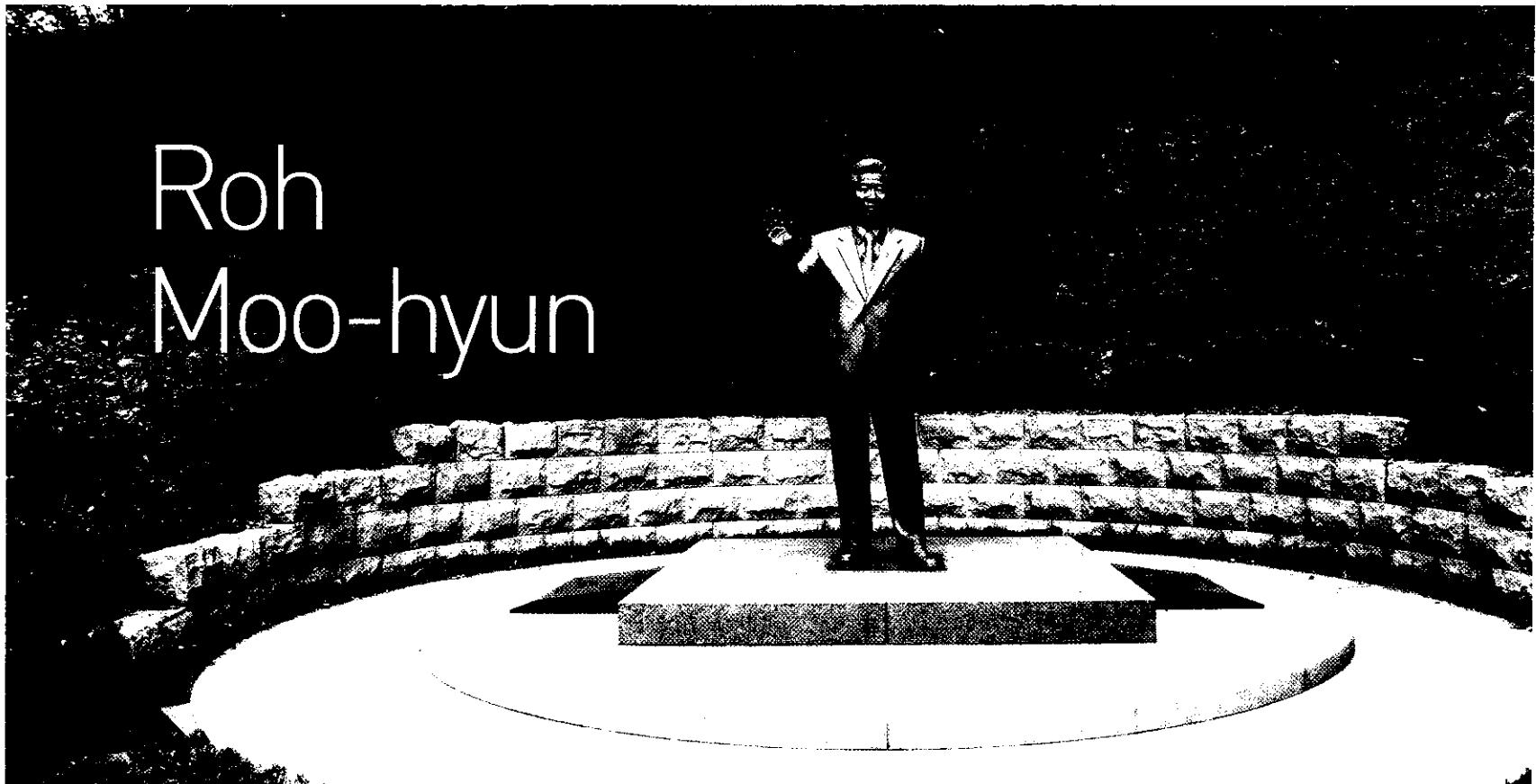
**"남북 화해와 평화의 길을 이어가다."**

김대중 정부의 핵심 정책을 계승하여 대북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3년 6월 개성공단을 착공하여 2004년 12월에 준공하였고, 2007년 5월에는 경의선과 동해선을 복원하여 운행하였다. 이어서 2007년 10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10·4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통일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여 불가침 의무를 준수하며, 남북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려 하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휴전선을 직접 걸어서 북한 땅을 밟은 첫 대통령이 되었다. 12월에는 도라산·개성 사이에 화물열차가 운행되었으며, 민간 분야의 교류도 활성화되어 개성 관광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 화해의 물꼬가 다시 트이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盧武鉉]  
1946.8.6 ~ 2009.5.23



# Roh Moo-hyun



**노** 무현 대통령은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대통령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를 벗어던지고, 국민들과 더불어 격의 없이 누론하고 소통하며 교감하는 지도사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 발신에 기여한 공로가 큰 대통령이었다. 자주 고방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자 했으며, 자수지인 경제발전을 위해 한미 FTA를 체결하고, 혼탁한 신기문화를 개선하고자 선거 공영제를 확대하였다. 수도권 인구밀집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특히 아무가 다르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 동상은 국민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과 십권 이후 사가가 있는 고향 봉화마을에 찾아온 방문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에 화답하는 모습이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생각하여 푸즈를 정했다. 소탈하고 구김살 없는 훤한 미소는 특히 서민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기에 충분한 상이 되도록 드높이 신경써서 표현하였다.



청남대 개방 12주년 기념  
대한민국 역대 10인의 대통령을 만나다

12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李明博]  
1941.12.19~



- 1941.12 일본 오사카 출생
- 1965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977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
- 1980 해외건설협회 업계대표 부회장
- 1988 현대건설 대표이사 회장
- 1991 동북아 경제협력 민간협회 한국측 회장
- 1993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 겸 운영이사회장
- 1996 제15대 국회의원 당선
- 1999 아태 환경NGO 한국본부 총재
- 2002 서울특별시장(32대, 민선3기)
- 2007.12 제17대 대통령 당선
- 2009.03 금융안정화 포럼 개최
- 2010.10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 2010.11 G20 정상회담 개최
- 2011.12 무역 1조 달러 달성
- 2012.03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 2012.09 피치, 대한민국 신용등급 더블A 상향
- 2012.10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창립총회



## ● 이명박

李明博 | Lee Myung-bak  
The 17th President(2008-2013)

이명박은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으로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대 그룹 정주영 회장의 눈에 띄어 현대건설 사장을 역임하였다. 정치에 뛰어든 것은 1992년이었다. 14대, 15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뛰어난 기업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2002년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며 여당 후보로 출마, 대권 경쟁자인 정동영,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미래 녹색성장의 길을 찾다."

2008년 2월 실용주의와 경제 살리기를 국정 지표로 내걸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환경 분야를 미래의 녹색 성장과 연결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05년 9월에 청계천을 복원하여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게 하였고, 뚝섬 경마장을 '서울 숲'으로 가꾸어 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대통령이 된 후 청계천 복원에서 더 나아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녹색뉴딜 프로젝트'를 주창하였다. 흉수 방지와 가뭄 해소는 물론 환경까지 함께 복원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었으나, 환경 파괴와 수질 오염 등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한편에선 태국의 물 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 가스를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종 재생 에너지와 대체 에너지의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008년 10월에는 람사르 총회를 창원에서 개최하였고, 2012년 10월에는 송도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GCF)을 유치하였으며, 이어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설치하여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이 분야를 육성해 나갔다.

### "국제 무역의 중심에 우뚝 서다."

2008년 세계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직면하였다. 미국의 부동산 가품이 꺼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했던 금융회사가 연쇄 도산하면서 경기가 후퇴하여 한국에도 영향을 끼쳤다. 주식이 급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가 위축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일찍 이 위기를 극복하였다. 2011년 12월 사상 처음으로 무역 1조 달리를 기록하였으며, 국가 신용도 역시 상향 조정되었다.

한편 수출 위주의 안정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세계 경제영토의 개척을 위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에는 한-EU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3월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그리고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서 기초 과학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 "자원 외교를 펼친다."

21세기에 오면서 에너지와 광물을 비롯한 자원의 확보는 어느 때보다 국가의 존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주요 산유국과 외교적 노력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추진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인도네시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 자원 부국을 방문하여 경제협력을 맺고 수십 건의 자원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추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될지 알 수는 없으나, 집권 초기 4.2%였던 석유와 가스의 지급화는 3배 정도 증가하였고, 광물 개발 역시 18.5%에서 29%로 증가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중동에 한국형 원자력 발전을 수출하였다.



### “국가브랜드 제고와 한류의 바람이 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마케팅, 언론, 문화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브랜드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위원회는 한국의 국가브랜드 정체성을 파악한 후 우리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임무를 맡았고, 한국을 홍보하는 민관기관의 활동을 총괄·조정하여 그 정체성을 정립하는 기능도 수행하였다.

그동안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2009년 11월에는 OF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여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전환하였고, 2010년 11월에는 G20 회의 의장국이 되었으며, 2012년 3월에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9년 5월에는 한식세계화 추진단을 설립하였고, 2010년 3월에는 한식재단을 설립하여 우리의 음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2011년 7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고, K-POP과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은 이러한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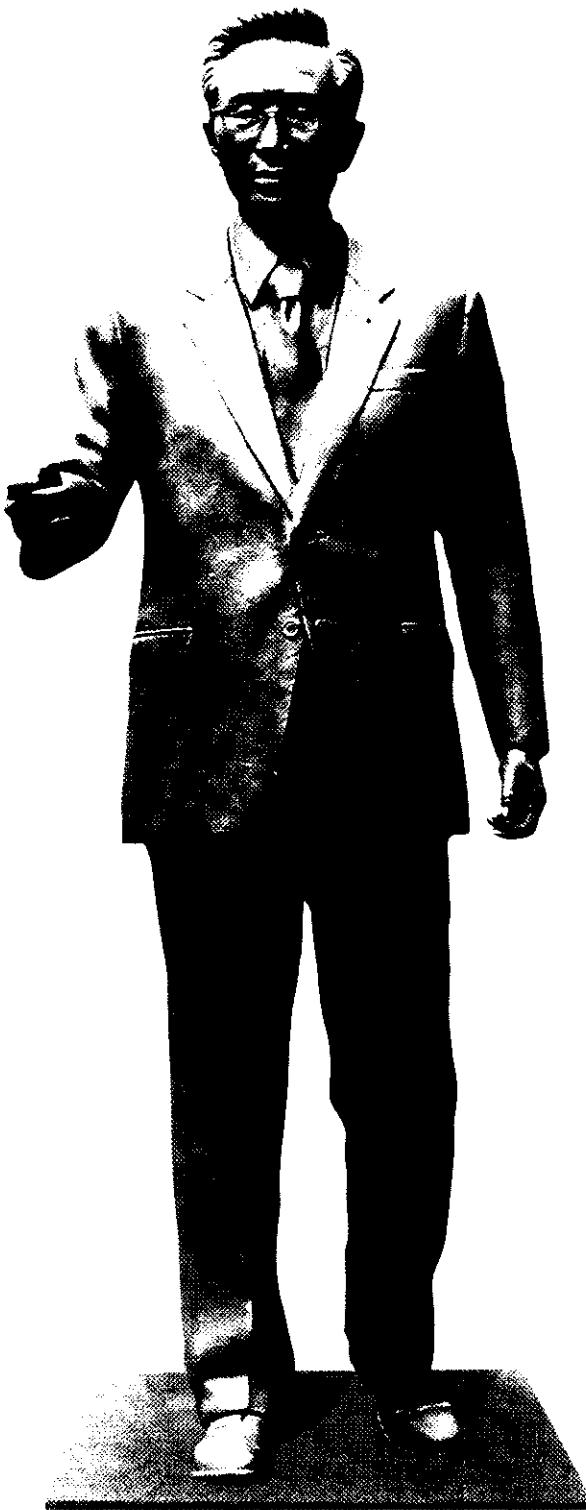
### “우주를 향해 꿈을 펼치다.”

세종 때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해 신기장을 개발한 이후 우리나라는 1992년 우리별 1호를 발사하여 우주개발에 뛰어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우주를 향해 큰 꿈을 펼치는 정책을 추진하여 2009년 6월 고흥에 나로우주센터를 준공하여 우주를 향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2002년에 나로호 개발을 시작한 이후 2009년 8월과 2010년 6월에 연속으로 실패하였으나, 2013년 1월에 드디어 나로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에서 11번째 ‘우주 클럽’에 진입하였다. 이것은 우주 강국을 향한 한국의 첫걸음이자 우주과학 사대를 여는 첫출발과 같은 사건이라고 하겠다.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으로 나로호를 제작한 정부는 항후 독자적으로 한국형 발사체인 케이블에 나서 2018년까지 시험 발사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75톤의 추진체 4개를 묶은 3단 분리형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할 예정이고 2025년에는 달을 정복하다는 위대한 꿈을 수립한 상태이다. 특히 우주사업은 과학 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현재 연간 300 조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갖춘 산업이므로 더욱 미래를 향한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李明博]  
1941.12.19 ~





# Lee Myung-bak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부지런한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대통령이 되기 전 서울시장 시절에는 청계천을 복원 할 당시 주변 상인들을 만나 수없이 대화하고 노론해서 설득한 일화로 유명하다. 정계천 복원은 수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완성하여 세계적 수목을 받았으며,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건축부문 대상을 받았다. 서울의 교통지옥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 전용차선과 대중교통 혼승제를 추진하여 풀기 어려운 서울의 교통문제를 완화 하였다.

자원외교를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세계를 누비며 각국의 정상들과 회담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4대강 건설, 평창 올림픽 유치, G20 정상회의 및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시키고 특히 자원외교를 위해 쉼 없이 해외 순방을 뛰어온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 동상은 행동하는 대통령, 바쁘게 움직이며 새로운 정책을 창출하려는 의욕이 넘치는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하고자 부지런히 뛰며 정책을 설명하는 힌 순간을 보작한 것이다. 현안국정을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부지런한, 성실한 대통령상을 강조하고자 이었다.



스무명의 작가들이 그려낸『역대 大統領들의 이야기』

# 역대 大統領의 업적·생애를 그리다



제1~3대 대통령  
**이승만** [李承晚]



072

업적 – 건국대통령

민족의 성지 백두산을 배경으로 우뚝 선 당당한 모습과 정부수립 선포식 장면을 통해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첫 지도자로서의 이승만 대통령을 그렸고, 건국과정에서 보여준 우방국과의 신뢰를 맥아더 장군과 만나는 장면으로 나타내려고 하였다.



074

미국 방문

1954년 미국 방문 카퍼레이드 장면을 통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국제적인 외교 능력과 위상을 나타냈으며, 친근한 인간미와 인류를 사랑하고 평화를 애호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온화한 미소와 여유 있는 표정으로 담았다.

이승만 대통령  
업적

## 건국대통령

화가 김영철

잘 알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기 이전부터 남다른 근대적 의식을 지녔던 분이다. 조선이라는 낡은 국체를 개혁하여 근대 국가로 탄생시키야만 외세의 침략과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이승만 대통령은 가지고 있었다.

입제치하부터 해방정국에 이르기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시녔던 생각은 동보가 함께 뭉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실력을 기르고 살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지녔던 단 하나의 목표였다.

작품의 전면에 민족의 성자 백두산을 밟은 색조와 어두운 색조를 교차시켜 그려 넣었다. 봉건제의 구습과 일제식 민지 차하, 혼란한 해방정국 등 너무나 오랫동안 신음 하였던 우리나라 백성들의 슬픔을 이 백두산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그 앞에 악가 오른쪽으로 비껴 서서 우뚝 서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 반 백 년에 이르도록 타자를 떠돌며 소국의 도립을 위하여 노심초사 새하얗게 산 미리카락은 새 조국의 첫 지도자로서는 낭연한 모습이라. 서예로운 노년의 경륜과 훈들림 없는 당당한 자세로 새 조국의 첫 길음을 내딛는 시도자의 모습을 깊은 감회로 맛이하였으면 한다.

아래 내한미국 장부수립 선포장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흰 두루마기 차림으로 손에 선포문을 들고 중앙청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단, 이상을 잘 알아 볼 수 있게 특징을 살리고자 하였다. 누구나 인식이 가능하게 함에 있어, 이 그림이 만화나 삽화가 아닌 이상, 말하는 입을 그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되도록 사진 얼굴내부 정확히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더불어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 드는 우방이 되어주 미국을 상징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을 만나는 장면을 배치하였다.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 최진경 지역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우방으로서의 미국의 관심과 우애를 표현한 것이다.

1942 중남 아신 출생  
이정 김은호 선생 원선 상으성 선생 사사  
한국미술협회 전무위원  
한국문인화협회 전무위원

주요 경력  
2006 선교남도 진한국화 전시회 은상;  
2005 의재 허백련 미술상 운영위원  
2004 내한민국미술대전 한국화 심사위원장;  
2003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운영위원장  
2002 안간미술대전 운영위원  
2001 대한민국미술나전 분인화 심사위원장  
1973 제22회 국선운영위원회 역임  
1970 제19회 국선승사위원회 역임

수상  
국전 입선 5회, 독선 4회,  
백양회공모전 특선, 장리상;

작품 소장  
세종대왕(전주 경기전), 정시 상구(광주 사당),  
고경명 상구(광주 사당), 김신일 상구(나주 충렬사),  
추시 김정희 선생(예산 추시고택),  
소치 선생(진도 소지기념관),  
왕인 박사(전남 원술신 왕인 사당),  
논개 고인(호순 직경회 사당경내 논개영당),  
이기유 선생(전남 달양) 등 다수





크기 | 300×200cm      재료    순지에 석채, 진채

이승만 대통령

## 영웅 행진

화가 김성호

이 작품은 간국대통령 이승만의 1954년 미국 방문 시 카퍼레이드 장면을 소재로 제작하였다. 당시 신생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카퍼레이드로 환영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적 친밀도가 어느 정도였던지를 짐작케함과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 능력과 위상을 강력하게 증명한 사건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 이 소재를 선택한 이유는 1950년대의 암울한 국운을 견뎌내야만 했던 대한민국을 하나의 국가로서 그 존재함을 국제사회에 드러낸 빛나는 업적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작가는 행진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에드워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 떠오른다. 미디움 템포로 여유 있지만 힘차고 당당한 영웅적 걸음걸이가 연상되기 때문이다. 카퍼레이드의 의미는 대외적 위용 과시에 있다. 행진을 바라보는 사람과 주체가 되어 그 모습을 과시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을 의전하는 사람들이 함께 표출하는 에너지가 주는 감동을 에드워드 엘가는 그렇게 표현했나 보다.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의 국빈으로 조대되어 이 퍼레이드에 참석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느꼈을 감동은 어떠했을까? 행진하는 동안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또한 머나먼 나라에서 온 연로한 대통령의 행진을 바라보는 미국 시민들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내가 이 그림에서 가장 집중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입장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지닌 정서의 어울림이다.

당시 미국민은 두 번의 내전을 치루고 한국전에도 자신의 아들이나 남편, 형제와 친구를 보냈거나 어찌면 직접 참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생국가이며 내전을 치열하게 치룬 지난하고 작은 나라 한국의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지 않았을까?

작품 속의 장면은 이미 의장대가 한비탕 요란한 행진곡을 연주하며 깃발을 휘날리고 시나간 뒤 드디어 기다리던 대통령 행렬이 나타난 장면으로 이 장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를 양분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화면 속 바리케이드 위에 올라가 행렬의 뒤편을 바라보는 빨간 모자를 쓴 작은 소년이 대한민국의 지나간 암울했던 과거를 상징한다면 화면의 맨 앞쪽 두 사람의 경호원은 대한민국의 다가온 미래를 상징하는데 그 눈동자와 표정을 각각 다르게 하여 강력한 국방력과 문화의 선진국으로 성장 할 대한민국을 표현하려 하였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표정은 건강한 미래를 희망하는 인류애를 표현하려 노력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온화한 미소와 여유 있는 표정에서 인간미와 자유민주주의, 인류를 사랑하며 평화를 애호하는 그런 지도자를 기대하게 하는 염원을 담았다.

1959 서울 출생

인하대학교 시범대학 미술교육과

주요 경력

2010 이화학원 재단이사장 신봉조 박사 초상 제작

이화학원 설립자 William Benton Scranton 여사 초상 제작

2001 만해 한용운 초상 제작

미국 광주지사 Bill Daniel 초상 세작

2000 김대중 대통령 초상 제작

1988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선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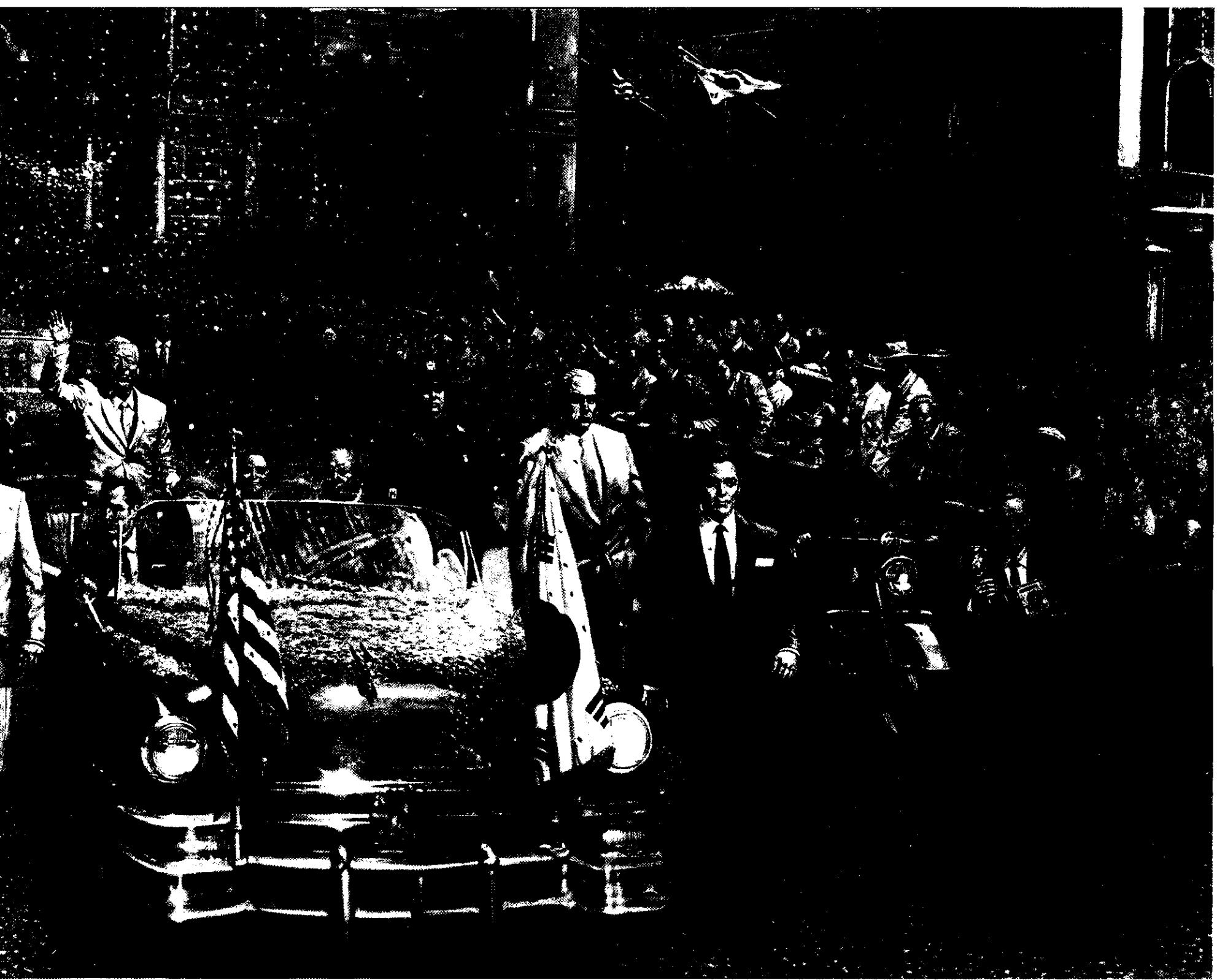
(이두식 선생과 공동제작)

작품 소장

정와대, 김대중 대통령사저, 만해기념관, 이화학원

미국 광주지사 Bill Daniel 사저 등





크기 | 291×197cm      재료 캔버스에 유채



제4대 대통령  
**윤보선** [尹潽善]



078

업적 – 외유내강(外柔內剛)

4·19 혁명을 통해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가 이끈 제2공화국의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한편, 우리나라 현정 사상 유일했던 의원 내각사를 부각함으로써 합리적이며 자준실 강한 윤보선 대통령의 모습을 흑백의 모노톤으로 형상화했다.



080

선언 – 대한민국 정부 출범식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근대 시민사회의 본산인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친 후 대한임시의정원 의원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한편 대통령직 하야 이후에는 민주화 회복운동에 기여했던 윤보선 대통령의 일생을 연대기 순으로 담았다.

윤보선 대통령

## 업적

# 외유내강(外柔內剛)

화가 이재삼

윤보선은 쉽게 누군가에게 호감을 주는 스마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번 자기 사람이 되면 각별하게 챙기고 그의 가족의 생일, 기일까지 챙기는 자상함을 보였다고 전한다.

'냉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인물평이 있다. 한편 그가 권위주의적이고 조선시대 선비의 사교방식을 기렸다는 평도 있다. 명문가비는 사조심과 더불어 양반의 권위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어 대단히 자기중심적이었다.'

그의 정치관은 흑백 양자택일이었기 때문에 일단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도무시 탐험을 모르고 한 길로만 내달렸다. 1960년 8월 29일 민정시찰 시 각료들을 불렀다가 월권행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사조심을 중히 여기는 명시형 정치인이라는 평가도 있다. 옳나고 믳는 것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었고 남에게 지지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그전까지 윤보선은 "영국에는 버려 대학을 나온 신사다.", "대부후 명문집 아들이다." 이렇게만 알았는데 이는 실재와는 차이가 있었다. 역사학자 서중석은 그가 상당이 정치적이고 야심도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대통령이 된 직후, 내각 책임 세 하이 수반이었던 장면 국무총리와 씨우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였으나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 서중석 교수는 윤보선처럼 박정희와 정면으로 붙은 사람은 없었고, 그것을 보면 사람은 겉보기와 다르다고 평가했다.

사진상으로 보아도 깔끔하고 밀숙한 신사였던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야랫배가 나오지 않았고, 피부길이 늘어지지도 않았다. 누가 주변에 약간의 주름과 간마섯이 있었던 것을 세외하면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젊어 보이는 편이었다. 젊은 아내와 어린 아들들 틈에 그는 자신의 외모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고 한다.

재임기간이 2년여의 과도기 정부인자리 오늘날 윤보선 대통령의 인물 자체도 기억을 못하는 현실에서 그의 초상을 정중양에 배치하여 부각시켰고 선뜻 호감을 갖기는 쉽지 않지만 보면 볼수록 매사에 합리적이며 자존심 강한 그의 성격이 드러나게 하였다.

작품 하단에는 윤보선 대통령의 큰 업적인 의회정치를 강조하기 위하여 장면 총리와의 만남과 당시 국회의 시당간들, 의회 개회 모습을 중심으로 표현하였으며 4·19 혁명으로 인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에 대통령으로 임명된 역사적 관점에서 혁명에 동참한 시민과 학생들의 모습을 함께 그려 넣었다.

작품의 기법은 당시의 시대배경과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 흑백의 모노톤으로 형상화 하는 것이 더 많은 공감대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하여 목판화 기법을 선택하였다.

1960     강원 영월 출생  
1984     강릉대학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졸업  
1989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주요 경력  
2007     한국미술진흥기금 예술상작시워 선정(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서울)  
2006-08    장흥아트파크 아뜰리에 레지던시(가야아트센터, 서울)  
2003-05    이영미술관 아트스튜디오 레지던시(이영미술관, 용인)  
2000     울해의 한 미술선 선정(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서울)  
            세경대학 건축디자인과 겸임교수 역임

개인전 25회  
2014     아트사이트 갤러리  
2013     스페이스 K  
2005     이영미술관  
2000     보스코미술관  
1999     한워미술관

주요 단체전  
201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1주년 기념 '정원' 전 이외 400여회

수상  
1988     중앙미술대전 장려상(중앙일보사, 호암갤러리, 서울)  
1983     청년미술대상전 우수상(한국미술청년작가회, 청년미술관, 서울)

작품 소장  
- 김현대미술관, 고김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미술관, 미술관, 이영미술관,  
한국야단드, 강릉시립미술관, 하나은행, 나이키청도연구소, (주)코오롱, 골프존



본 작품은 윤보선 대통령의 생애를 주제로 민주화 회복운동의 선구자였던 해위 윤보선의 일생을 연대기 순으로 구성하였다. 개화 가문의 후예로 태어났음에도 부귀와 영예의 충동을 멀리하면서 자유민주국기를 만들고자 애썼던 그의 고매한 기백과 삶, 가족애를 통해 이 시대의 참된 민주화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윤보선의 가문은 조부 대에 100칸 집을 마련할 정도로 가계를 다시 일으켰고, 그의 당숙인 윤치호는 대한제국 외무부 학부협판과 한성부판윤을 지냈다. 아버지 윤치소는 아산군의 만석꾼이었으며 어머니 이범숙 역시 아산 만석꾼의 딸이었다.

작품 중앙의 윗부분에 그려진 한옥은 그가 태어난 충남 아산의 집이다. 그는 부유한 환경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그는 회고록에서 ‘집안은 부유하였고 선대는 대대로 벼슬을 해온 집안이었기에 부러운 것을 모르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스스로 말하였다. 그가 어려서 자란 안국동의 자택 안동장은 99칸의 대저택이었다.

상단 중앙에서 우측으로는, 신학문을 처음 접하던 교동보통학교 시절의 모습과 일본 게이오 의숙으로의 유학 때 모습, 그리고 영국 에든버러대학 졸업식 때의 모습이다. 하단 우측에는 그의 가족사진을 그려 넣었다.

태극기를 배경으로 서 있는 젊은 윤보선은 여운형의 영향으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할 때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청년기의 열정과 애심을 표현한 장면이나, 그의 가문과 영국 유학을 높이 산 임시정부는 1919년 당시 스물 한 살의 약관인 그를 최연소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임명하였다.

작품 좌측에는 대통령 재임 시 윤보선 대통령의 초상을 중심으로 제5대 대통령 선거 유세 장면과 영국 유학시절 귀족적인 포즈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을 그려넣었다.

이상의 몇몇 장면을 통해 그의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아 보았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가문이 좋은 분이 아마도 윤보선 대통령일 것이다. 더욱이 그는 개화된 가문에서 태어나 근대사회의 본산인 영국 유학까지 다녀왔으며 상해 임시정부에도 몸담은 분이다.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에 그는 신생 대한민국을 이끌 쟁격자였으나 1961년에 일어난 군사 쿠데타로 채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점이 못내 아쉽다.

1964 중복 제천 출생

1983 서원대학 미술학과 졸

현재 사)한국미술협회 이사, 통합청주미술협회 회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 대한민국회화제 위원

서울아카데미 이사, 충북구상작가회 이사

한국수채화협회, 대한민국회화내상전 조직위원장

아트정주 조직위원장, 현대미술작가연합회 조직위원장

주요 경력

대한민국미술대전 외 신사·운영위원 50여회 역임

개인전 25회

주요 단체전 540여회

수상

2011 대한민국 미술인상

2009 서울아카데미상 수상

청주예술공로상 수상

작품 소장

중원문화기록회(충주문화회관), 전쟁기록회(공군사관학교),

제임스 알렉스비셀 대통령 인물화(세이셸 대통령궁 집무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크기 | 291×197cm      재료 | 캔버스에 유채



제5~9대 대통령  
**박정희** [朴正熙]



084  
업적 – 위대한 출발

조국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었던 경인·경수고속도로 개통식을 배경으로 국가 경제개발과 민족의 중흥을 염원하였던 박정희 대통령의 위엄 있고 진지한 모습을 표현했다.



086  
농민과 함께 농촌마을에서 땀 흘려 일한 뒤 농민들과 소탈하게 사참을 나누며 약걸리를 권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이를 포근한 미소로 바라보는 육영수 여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아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새롭게 변모한 농촌마을에서 함께 땀 흘려 일한 뒤 농민들과 소탈하게 사참을 나누며 약걸리를 권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이를 포근한 미소로 바라보는 육영수 여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아냈다.

박정희 대통령  
업적

## 위대한 출발

화가 이철주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수원 구간이 완공되고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던 날, 박정희 대통령이 도로 위에 삼폐인을 뿌리는 이 장면이야말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중흥을 비는 엄숙한 세의(祭儀)로서 국가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끌며 선진국가로 발돋움케 한 위대한 출발선상에 있다 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경제개발과 조국 근대화의 가치 아래 강력한 국가 주도의 성장 정책을 펼쳐 헐벗고 기난했던 나라와 국민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개발도상국의 모범으로 틀바꿈 시켰다.

당시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기반시설의 확충과 각종 공업단지, 수출 단지를 조성하고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물류 유통이 중요하게 되었다.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 호남, 영동을 차례로 개통하여 수출 상품의 원활한 유통·운송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드는 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한국 경제의 규모와 성장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장면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능한 위엄 있고 진지한 느낌이 배어나오도록 작품을 구성하였으며, 그 재료 또한 그에 맞는 것으로 채택하였다. 한지를 다섯 번 배접하고 그 위에 교반수를 발라 마른 후에 밑그림을 그리고 재색을 하는 것으로 그 품격을 높였다.

작품은 크게 다섯 장면을 형상화하였다. 우선 가장 큰 부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개통식에서 도로 위에 삼폐인을 뿌리는 포즈로, 힘차고 역동적인 자세로 시대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그렸다. 그 주변으로 산업화, 중공업 육성, 농촌의 새마을 운동, 현대화 영농정책을 이미지화하여 작업하였으며 도시의 건설과 현대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아파트 건설을 이미지화하였다.

고속노로야말로 한국 경제성장의 매우 중요한 견인자 역할을 해왔다. 1964년 박대통령이 서둘러 방문했을 때 인상 깊었던 독일 아우토반의 영향으로 1967년 착공하여 이듬해 개통된 경인고속도로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이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고속도로 역사는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8년 첫 삽을 뜨게 된 경부고속도로가 착공된 지 불과 2년 만인 1970년 7월에 완공됨으로써 이제 고속도로는 한국경제에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고속도로는 물류유통 혁신과 자동차산업 등 중화학공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에 시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오늘날 경제 성장의 초석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의 기록화를 '위대한 출발'로 명명하고 그 주된 이미지로 고속도로 개통식 장면을 담개 되었다.

1941 충남 성양 출생  
1967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2006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09 농국대학교 석좌교수

주요 경력  
1992 중앙기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1986 동아미전 심사위원 역임  
1984 내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개인전 6회  
1992 금호미술관 조너 개인전 등

주요 단체전  
2005 북경 비엔날레 조너 출품 등  
나수 단체전 출품

수상  
2009 안건 미술문화대상 수상  
1976 국전 문화공부부장관상 수상  
1974 국전 국무총리상 수상

작품 소장  
내남칠성,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금호미술관, 호암미술관 등





크기 | 291×197cm      재료 | 한지에 수각채색, 봉자, 수묵

박정희 대통령  
생애

## 잘 살아 보세

화가 김순옥

이 그림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새롭게 바뀐 농촌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함께 땀 흘려 일한 농민들에게 막걸리를 권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담았다. 화면 가운데에는 햇살에 그을린 농민과 그 옆에 영부인 육영수 여사 그리고 오른쪽에 박정희 대통령이 보인다.

이때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고 막걸리로 농민들과 소통하는 지도자의 참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쌀 소비 억제를 위해 금지되었던 쌀막 걸리 제조가 허용된 것도 그의 재임시절인 1977년 일이었다.

멀리 울창한 숲과 개량된 농가 지붕이 당시 시대상황을 말해준다. 지금과 비교하면 무척 부족했지만 부자런히 일하면서 그래도 낙낙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곳곳에 펼쳐져 있던 시절이었다.

술을 따르는 박정희 대통령과 미소 짓는 육영수 여사의 모습에서 푸근한 인간미를 흡뻑 느낄 수 있게 작품화하였다. 70년대 농촌만 하더라도 인정 넘치는 새참 문화가 존재하였고 마을 공동체도 새마을 운동에 힘입어 활기 넘치는 공간이었다.

아이들과 청년층도 농촌에 많이 살고 있었다. 지금의 농촌 모습과는 사뭇 차이가 크다. 이를테면 옛 시절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무한한 희귀 본능의 마음도 그대로 작품에 담고 싶었다.

작품의 배경과 구도, 채색에 많은 신경을 썼다. 기울의 진한 갈색과 황금색이 주가 되어 흙냄새 나는 농촌의 색채를 강조하고 긴 수평구도와 함께 화면 아래를 진하게 채색하여 개화된 농촌을 안정감 있게 표현하였다. 새마을운동으로 초가집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그 당시 지붕색이었던 회색과 원색에 파스텔 색채와 보색을 가미하여 부드러운 양광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이 힘들어도 낙낙하고 푸근한 정이 많았던 그 시절을 암암 있는 인물들의 순박한 미소와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누구보다도 농민의 노고를 잘 알고 있었기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농부에게 막걸리 한 잔 권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은 수많은 역사적 격변기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대통령으로서의 그를 카리스마 속의 친근한 모습으로 남아 있게 한다.

1963 서울 출생  
1996 노트내학교 미술과 졸업  
2001 동 대학원 졸업(예술학 박사)  
현재 서울시 미술심의위원  
(사)서울미술협회 서양화분과 이사  
해외교류작가회 운영위원장

**주요 경력**  
2014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팜아트페어 예술총감독  
2013-14 단국대학교 겸임교수, 상명대학교 특임교수  
2009-14 유니아이드갤러리 관장  
2006-11 경향미술대전 예술총감독  
2004-05 총익대학교 겸임교수

**개인전 83회**  
한국, 일본, 중국, 덕카, 인도, 타지키스탄, 미국,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리비아, 우루과이, 브라질,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프랑스, 독일, 러시아, 헝가리,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등

**주요 단체전 140여회**  
한국, 중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터키, 파라과이, 독일,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수상**  
2013 2013대한민국창조예술대상 대상  
2003 2003마니프 국제아트페어 우수상  
2002 제16회 대한민국회화대전 대상  
1995 제16회 현대미술대전 대상  
이외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종 3회 등 다수

**작품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외교동상부, 국회의사당, 서울대학병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뉴욕 UN본부, (주)삼성그룹, (주)한희그룹,  
(주)IOS칼네스, (주)현대자동차, 주 이르헨티나 한국대사관,  
주 중국 한국대사관, 주일 한국대사관, 탄자니아 국립박물관 등





크기 | 291×197cm 재료 | 캔버스에 유채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崔圭夏]



090

업적 – 선비대통령

올곧은 선비정신을 갖춘 지도자로서 혼란한 시국에 중도적인 입장에서 국묵히 과도정부를 이끌며 자원 및 에너지 확보 정책을 추진했던 최규하 대통령의 업적을 당시 급박했던 시대적 상황과 대비하여 나타냈다.



092

오랜 시간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고양시켰으며, 국무총리 등을 지내며 평생을 검소하게 생활해 온 최규하 대통령의 소탈함을 유품과 일화를 통해 서술적으로 표현했다.

최규하 대통령  
업적

## 선비대통령

화가 손부남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직업공무원으로 평생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유일한 인물이었던 최규하 대통령은 올곧은 선비정신을 가진 지도자로서 정치적 야망 대신 타협과 대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임무를 정확히 인식하여 혼란스러운 과도기 상황에서 중도적인 입장으로 시태를 처리해 나갔다.

위와 같은 시대의 숙명적 분위기를 작품의 구도와 색감으로 표현하였다. 작가는 대통령 재임기의 시내저 배경과 쓸어 온 업적을 소재, 형태, 색채로 화면 안에 배치하고 각 요소를 하나의 통일체로 녹아들게 하였다. 무채색 위주의 배색과 화면 중앙에 최규하 대통령과 각료들을 배치시키고 화면 주변에 재임기간 동안의 업적을 단순한 화면구성이 아닌 사각형 프레임의 한계를 역이용하여 무한한 시각표현으로 만들어냈다.

최규하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은 자원과 에너지 확보 정책이었다. 이는 박정희 시대에 추진한 경제개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어 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 화면 상단 좌우에 배치하여 역사적 사건의 순간이 징자된 화면처럼 피사체의 움직임과 빛바랜 색감으로 청회색의 시대로서 시간성에 대한 의미로 부여하였다. 한편 왼쪽 하단 최규하 대통령의 이미지는 에너지 지원 확보와 함께 철강 산업 육성에도 활발한 활동을 한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화면은 1979년 건설한 온산 동제련소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던 모습이다.

최규하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과 시대식 불안감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 화면 구성에서 색채와 명암 등의 요소를 이용하여 학가 본인의 의도적인 색채 구성으로 표현해 평온한, 불안감 등을 강조하는 조형적 요소로서 구도를設立했다. 또한 영악 대비와 균형감을 상실시키는 의도적인 구도 설정을 강조하였다.

전통적인 회화에서는 묘사대상의 형태가 중요하며 크기, 볼륨, 면을 달리하는 반면, 작가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묘사한 작품에서 역사적 상징성을 부분만을 강조하고 나머지 요소는 과감히 배제시켰다. 이러한 점은 최규하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을 성확하고 강렬한 이미지로서 관람객에게 각인시키려 하는 의도성을 내포한 것이다.

화면 중앙 배경으로, 당시 '서울의 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의도적인 구도처리와 상징적인 색채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였다. 일터와 캠퍼스를 벗어나 거리로 진출했던 젊은이들과 학생들의 모습을 어둡고 희미한 색감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시대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작품 우측 하단 태극기와 전두환 장군의 등장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진압되고 5월 31일 국정전반을 관할하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가 설치되었던 스토리를 함축하고 있다.

그의 일생을 작품 안에 함축적으로 표현하면서 작가는 균형감 있는 구도와 심도에 집중했다. 최규하 대통령 인물 중심에 전경, 중경, 후경으로 표현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작품을 완성하여 관람객의 시선에서 화면에 담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유추할 수 있게 하였다.

1957 충북 청주 출생  
1983 충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2001 충북대학교 대학원 미술과 졸업

### 개인전

2011 제22회 개인전  
(유엠갤러리, 서울 / 무심갤러리, 청주)  
2010 제1기회 개인전(유엠갤러리, 서울)  
제20회 개인전(무심갤러리, 청주)  
2006 제19회 개인전(버몬트스튜디오센터, 버몬트)  
2004 제18회 개인전(무심갤러리, 청주)

### 주요 단체전

2012 진부한 평범(스페이스봄미술관, 청주)  
2011 소리풍경(스페이스봄미술관, 청주)  
2010 ICA 국제현대미술 조명전(한선프리자, 서울)  
아트 인 하우스(갤러리 더힐, 서울)  
제14회 일불 현대미술전  
(오오모리 베르노토 아트리움, 동경)

### 수상

2006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프리랜 아시안 펠로우쉽(존슨, 버몬트, 미국)  
2003 올해의 좋은 작가상(무심미술회, 청주)

### 작품 소장

전기공사공제조합(서울), 한국가스공사(성남),  
한국석유공사(안양), SK텔레콤사옥(청주),  
국민은행(청주), 충청북도교육청(청주),  
조흥은행(성수), 라마다프라자호텔(청주),  
부산광역시립미술관(부산),  
로드랜드골프&빌리지(제주)





크기 291×182cm 재료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

최규하 대통령  
생애

## 유근유공(惟勤有功)

화가 이은정

최규하 대통령은 짧은 대통령 기간에 비해 외교관, 총리 등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의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높은 공직에 있었으나 항상 검소하고 맑은 임무를 우직하게 해나가셨다. 작품에서는 최규하 대통령의 유품 및 활동내용을 통해 그의 우직함과 검소함을 한 화면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먼저 좌측에 백지를 들고 연설하는 모습을 담았다. 1970년 외무장관 시절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연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반고 연단에 올라갔다 박수와 갈채를 받으며 내려왔는데, 이때 그의 손에는 백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해 온 연설문을 읽었느냐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어 백지를 들어다보며 연설했다”고 털어놓은 일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나. 부인이 아들 때는 혈압체크를 매일하고, 자택에서는 난방상태를 항상 점검하여 기록했다고 한다. 평소 사용하는 메모지는 검소한 그답게 이면지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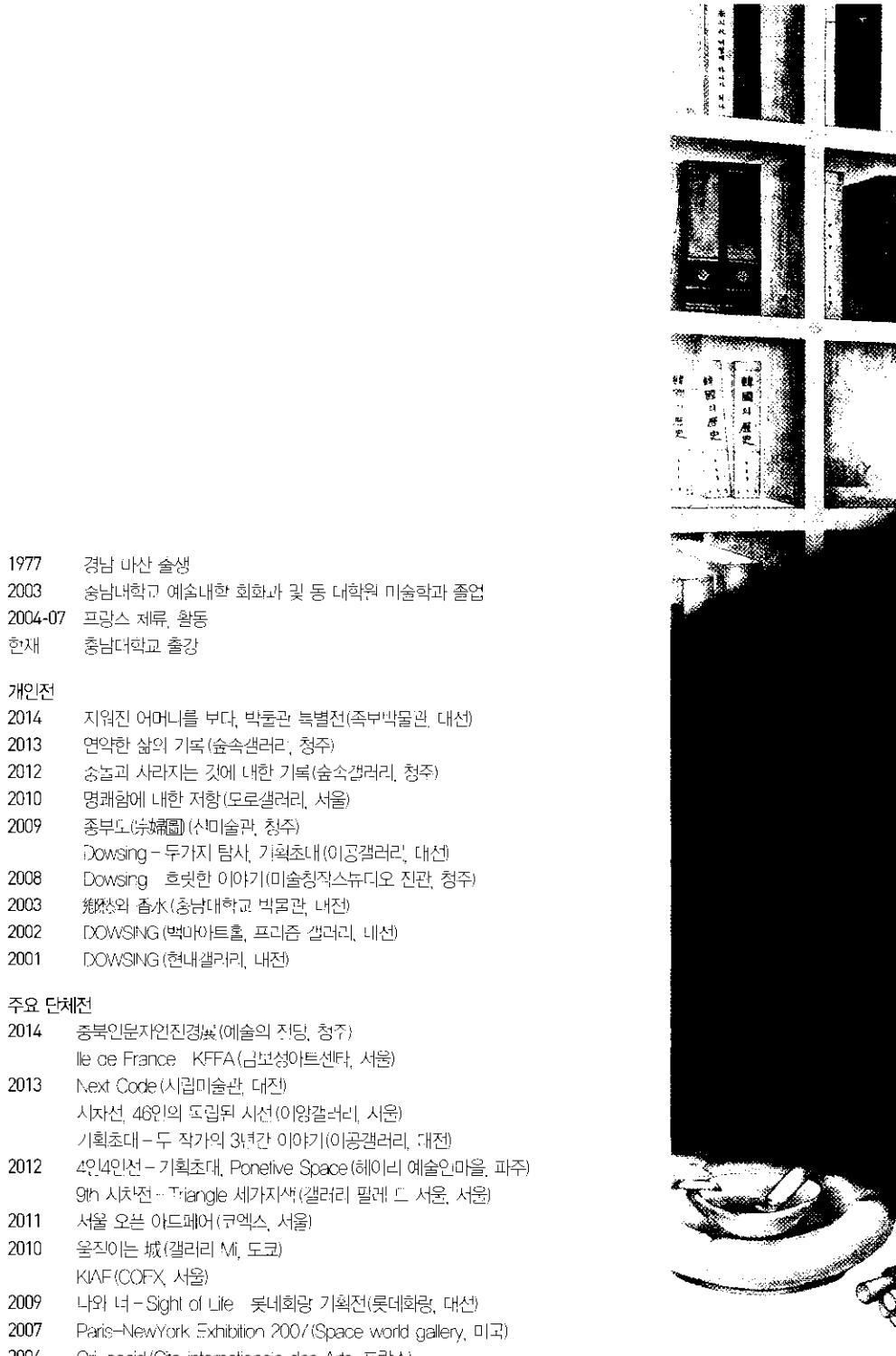
내통령의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자 좌측 이단 여백으로 처리한 책상 위에 메모지를 그려 놓았다. 그 당시 일반 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달력을 소재로 하였고, 달력 뒷면의 글씨가 배어나오는 것을 담아 기법으로 그렸다. 달력의 날짜는 최규하 대통령의 취임식 날짜이다. 오랜 공직생활과 임대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때문인지 취임일이 가장 익히 있는 날로 여겨져 선택했다.

애연기였던 대통령이 평소 사용하던 옥색 재떨이와 한산도 담배를 그렸다. 당시 일반인들도 쉽게 사 피우던 한산도 담배였는데 대통령이 그 담배를 피우니 외국인들은 한산도 담배를 한국에서 가장 비싼 고급 담배로 인식했다고 한다.

내통령 뉘에 있는 책상의 색들은 서교동 사택기념관에서 본 모습을 그대로 그렸다. 철학, 미술, 정치 등 다방면의 책들은 앞으로 나가올 시대에 대한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책장에는 ‘부지런한 노력만이 그 공을 인정받는다’는 뜻의 ‘유근유공(惟勤有功)’이라는 글귀가 친필로 쓰여 있는 접시가 있다. 이는 대통령의 좌우명이다.

중간에 등장하는 연탄난보는 서교동자택 지하의 연탄보일러이나. 1979년 제2차 오일 파동 때 강원도 상성광업소 광부들과의 대화에서 “나만이라도 끝까지 연탄을 때겠다.”라고 말한 이후로 서거하실 때까지 연탄을 때며 살았다고 한다. 그 이후의 선봉기 역시 1963년 일본대표부 종영사 시절, 따님 종혜씨의 땀띠 치료차 구입하여 2006년 돌아가실 때까지 무려 53년이나 사용한 것이다.

그림 우측의 상단은 강원도 원주의 생가 모습이다. 그 아래 그림은 총리시절 1972년 세계적인 석유 파동 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직접 설득함으로써 원유확보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장면을 그려 놓았다. 하단의 탄광 시찰 모습은 1978년 장성탄광 시찰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다.



1977 경남 미산 출생  
2003 숭남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및 동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2004-07 프랑스 제류, 활동  
현재 충남대학교 졸강

개인전  
2014 지입진 어머니를 보다, 박물관 특별전(족부박물관, 대선)  
2013 연약한 삶의 기록(숲속갤러리, 청주)  
2012 숭늘과 사라지는 것에 대한 기록(숲속갤러리, 청주)  
2010 명쾌함에 대한 저항(도로갤러리, 서울)  
2009 종부도(宗婦圖)(신미술관, 청주)  
Dowsing - 두 가지 텀사, 기획초대(이공갤러리, 대선)  
2008 Dowsing 흐릿한 이야기(미술창작스튜디오 진관, 청주)  
2003 雜然와 香水(충남대학교 박물관, 내전)  
2002 DOWSING(벽미아트홀, 프리즘 갤러리, 대전)  
2001 DOWSING(현대갤러리, 대전)

주요 단체전  
2014 중북인문자인전경(예술의 전당, 청주)  
Île de France KFFA(금모성이트센터, 서울)  
2013 Next Code(시립미술관, 대전)  
시자선, 46인의 조립된 시선(이양갤러리, 서울)  
기획초대 - 두 작가의 3년간 이야기(이공갤러리, 대전)  
2012 4·14인선 - 기획초대, Ponetive Space(헤이비 예술인마을, 파주)  
9th 시자전 - Triangle 세가지색(갤러리 말레 드 서울, 서울)  
2011 서울 오픈 아드페어(코엑스, 서울)  
2010 월직이는 城(갤러리 Mi, 도쿄)  
KIAF(COFX, 서울)  
2009 나와 너 - Sight of Life 롯네회랑 기획전(롯데화랑, 대선)  
2007 Paris-NewYork Exhibition 2007(Space world gallery, 미국)  
2006 Ori-occid(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프랑스)



크기 29x39cm 새료 '한지에' 년, 채색



제11~12대 대통령  
**전두환** [全斗煥]



096

업적 – 멸사돌진(滅私突進)

오늘날 한강의 모습을 있게 한 한강종합개발 공사현장 시찰을 소재로, 항상 당당하고 거침없이 일을 추진해나간 전두환 대통령의 결단력과 강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당시 격변기 시대적 상황을 하늘의 먹구름으로 나타냈다.



098

생애 · 청남대에서의 밤중회

재임 시절 건립한 청남대에서 가족들과 오붓하게 휴식을 취하는 일상의 모습을 밝은 색조로 담아냄으로써 강한 추진력으로 상징되는 전두환 대통령의 또 다른 부드러운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다.

전두환 대통령  
업적

## 멸사돌진(滅私突進)

화가 구자승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대통령 재임과 퇴임 후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어찌 보면 불운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나라의 통수권자로서 1·21 사태,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12·12 사태, 광주항쟁 등 수많은 격변을 겪으면서도 고질적인 인플레를 잡고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하면서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흑자로 돌려놓은 그야말로 안정과 성장 흑자의 세 마리 노끼를 함께 잡은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다. 88올림픽 유치나 한강개발사업 또한 중요한 업적 중 하나다.

축구부 골키퍼로서 육사생도 시설을 보냈던 전두환 대통령이 졸업 앨범에 남긴 말은 사전에도 존재하지 않는 '멸사돌진' 이었다. 이는 그의 평생을 관통하는 진우병과도 같다. 다양한 정치적 경험도 없이 군 조직생활을 통해 익힌 용인술과 리더십으로 대통령 새임 시 수많은 국가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결단력은 '사적인 것을 떨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멸사돌진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 퇴임 후 어느 날 작가는 초상화 건으로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대통령의 첫 말 한마니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누얼 하고 지냈는지 아시오? 손녀딸과 하루 송일 정원에서 물장난 치고 놀았지" 하는 말에 매우 소탈이고 인간적인 제취를 느끼게 하였던 일이 기억난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대통령 퇴임 후 과거 운전병이었던 젊은이가 일자리가 없어 살기가 어렵다는 얘길 듣고 즉시 취직자리를 일시해 주었던 일, 대통령 주치의였다는 모 교수 딸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강원도에서 골프 라운딩 중 서울로 돌아갔다는 일화 등을 생각해 보면 그가 살아오면서 부하를 잘 거느리고 특출한 보스 기질과 두터운 의리를 갖고 있는 풍 큰 리더로 회사되는 것이 우연이거나 혀연은 아닌 듯하다.

작품 이미지는 전두환 대통령이 한강개발 현장을 직접 시찰하면서 공사 진척 현황과 문제점을 채근하는 모습을 담았다. 기록화를 제작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의 성격이나 그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과 일을 진행함에 있어 머뭇거림 없이 과감히 나서서 해결해 내고야 마는 집념, 뛰어난 리더의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럼 상단부에 전체적으로 깔끔 하늘의 먹구름은 국내의 수많은 격변을 겪어야 했던 시대적 배경을 표현하려 한 것이며, 과업 앞에서는 언제라도 당당하고 늄름했던 대통령의 진지하고 강한 모습을 단으로 노력했다.

1941 서울 출생  
1969 종교대학 회화과 및 농대학원 졸업  
1981 Ontario College of Arts 졸업  
현재 상명대학 명예교수

주요 경력  
신미술회, 한고드로잉협회 회장  
한국인물작가회 고문  
(사)세계미술분학진흥협회 부이사장  
단원미술제운영위원장  
전도학, 노태우, 김대중 대통령 초상화 세작

개인전 15회

주요 단체전  
부부전 1회  
Art Fair 참가  
(Tokyo, Miami, New York, Beijing, Italy)  
조대전 단체전 500여회 출품

수상  
2010 올해의작가상(서울시립미술관)  
2007 오조근정후장(내동령)  
2003 서계평화교육자상  
2002 Salon Violet 은상  
2000 오지호미술상  
1998 브라질로 국제현대미술제 수형예술상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프랑스소몽시립미술관, 프랑스깔비시립미술관,  
일미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정부내, POSCO, LG, 삼성, 한국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외 다수





크기 291×197cm 재료 캔버스에 유자

전두환 대통령  
생애

## 청남대에서의 망중한

화가 우은정

이 작품은 전두환 대통령이 청남대에서 가족들과 오붓하게 휴식을 취하는 일상적 풍경을 주된 보티브로 작업하였다.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오뉴월의 풍성한 기운이 감돌 수 있는 따스한 계절의 풍경을 바탕으로 하여 한갓진 여유와 부드러운 분위기의 대통령이 평온한 사세로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왼쪽이 높은 직각삼각형의 구도를 사용하여 대통령의 모습을 배지함으로써 친근 하지만 권위에 손상이 가지 않게 나타냈으며, 손주의 재롱을 바라보는 평범한 일상을 표현함으로써 권위에 친근감을 주었다. 대통령의 가족은 물론 일반 감상사들의 평범한 일상도 희망과 꿈이라는 소방을 행복한 화면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대통령의 복장은 흰색을 주된 톤으로 사용하였다. 무거움에서 벗어나면서도 위엄을 주기 위함이었으며, 영부인의 복장은 흰색과 블루계통의 상의로 표현하여 산뜻한 분위기와 부드러운 품위를 나타내고자 했다. 또한 대통령 내외의 시선 끝에 영애와 영순을 그려 넣어 친근한 분위기에 한결 다가가기 쉬도록 표현하였다.

영애의 복장은 방금 운동을 끝내고 온 육상 복장으로 표현했는데, 대통령의 가족도 평범한 국민들의 가족과 같음을 보여준다. 하의의 붉은 색은 전체적인 배경의 잔디의 녹색과 보색 관계로 화면 자체에 아주 활동적이고 활기찬 점을 보아도 알 수 표현하고자 했다.

수풀으로는 츄구공과 탁구공을 배치하여 대통령의 취미와 스노우 강국에 대한 자대한 관심을 나타내었으며, 장난감 전차를 통해 대통령의 일생이 고인의 길을 걸어왔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낙서 위의 재벌이는 대통령이 상당한 애연기였음을 암시로 표현하였다.

뒷 배경으로 나타나는 청남대의 모습은 준공 직후인 1984년의 모습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다. 지금의 청남대와는 모습이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의 청남대는 나무가 잘 자라 조경의 백미를 보여 주는 반면, 당시의 청남대는 정면의 배롱나무 등이 아직 풍성하지 않다. 한편 2층을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의 모습도 없다.

작품은 간버스 틀에 아사천을 매어 그 천 위에 흰 젯소로 바탕칠을 하고 물감을 텔레핀과 리시드라는 기름에 개어 붓으로 그린 유화이다.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계통을 피하면서 색의 채도를 떨어뜨리지 않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맑고 밝게 화면을 표현함으로써 대통령 가족으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지키면서도 밝은 일상의 평안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표현하고자 했다.

1961 충북 제천 출생  
1995 경주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졸업

### 주요 경력

2004 너는 화가입니다(도서출판 다다, 서울) 저술  
만화개론(도서출판 다다, 서울) 저술  
2001 민화가로하게 읽기(도서출판 다다, 서울)  
와 나수 저술

### 개인전 11회

2012 바란의 결에 바람으로 서서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전관, 청주) 등

### 주요 단체전

2013 대청호 프로젝트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청주)  
등 다수

### 수상

2000 제19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1999 제1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1998 세1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1997 제22회 충청북도미술대전 대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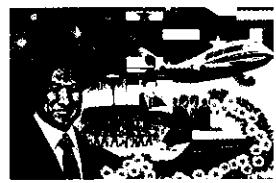




크기 | 291×197cm      재료 | 캔버스에 우체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盧泰愚]



102

업적 – 북방외교의 초석

경부고속철도, 서해안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동유럽 및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를 이루어낸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외교 성과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104

1987년 6월 전고적으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원하며 대통령직선제 요구 등을 수용하는 6·29선언을 소재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대통령의 고뇌에 찬 모습을 그려냈다.

노태우 대통령  
업적

## 북방외교의 초석

화가 이홍원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은 6·29선언과 북방외교, 인천공항 건설, 88서울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간선로 집약될 수 있다. 그는 6·10 민중항쟁의 뜻을 조선부 수용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이를 끝자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5년 난임의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을 세정하여 권위주의적이었던 전두환 정권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을 소설이나 풍자물에 등장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질시를 티파하고자 노력하였다.

재임 중에는 '북방외교정책'을 추진하여 한·소 국교회복과 한·중 국교 회복에 새 선거를 마련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노력하였다. 특히 90년 대 초에는 남북 공동으로 유엔에 가입하는가 하면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세계탁구대회에도 참가 하였다. 이어 7·7선언으로 미국에 대한 절대 우주적인 외교에도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례히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을 역사화로 표현하는데 있어 우선 쇠총에는 올림픽 개막 선언 후 '노태우 대통령이 활짝 웃는 모습을 배치하였고 불꽃놀이를 오륜새(빨강, 파랑, 초록, 노랑, 김정으로 표현하였다.

오른편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외교를 상징하는 동유럽 및 사회주의 국가의 국기(승국,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를 조형적으로 배치하였다.

.1 끝으로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힘차게 떠오르는 모양을 그려 넣어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과 인천공항 개항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중앙부에는 6·29선언과 외교수방 모습을 네모 형태로 구성하여 지루함을 없애고 올림픽 성화가 티오르는 장면과 온 국민이 환호하는 모습을 넣어 함께 축하하며 손에 손을 잡은 국민들의 하나됨을 표현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여 진행하였고 이후 5공 청문회를 아는 등 제5공화국의 비리를 근절·청산아려는 시도가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2년 이후 25년 만에 민간인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형상화하기 위하여 고속 침도와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연결시켜 대한민국을 질주하는 고속열차를 그려 넓은으로써 전체 화면에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주제적 흐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1955 종보 청원 수상  
1980/83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과 및 중 대학원 졸업

### 개인전

- 2014 개인전(온시아트센터, 서울)  
드로잉전(술수갤러리, 성수)  
봄 다실전(진주한지박물관, 선주)  
숲소의 노래(온시아트센터, 서울)  
2012 숲소의 노래(온시아트센터, 서울 /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2011 꽃을 사랑한 호랭이(갤러리 AITY, 서울) 초대  
2009 꽃을 사랑한 호랭이(대성호미술관, 청원) 초내  
2002 숲소의 노래(청주예술의전당, 청주)  
1997 도자기 그림전(하진갤러리, 청주) 초내  
1996 작은 그림전(무심갤러리, 청주) 초대  
1993 비. 바린. 구름(갤러리 타임, 서울 / 동성갤러리, 내구 / 학천갤러리, 정수) 초대  
1991 개구쟁이 노래(무신갤러리, 청주) 초내  
1990 삶의 노래 II(백악미술관, 서울)  
1986 삶의 노래 I(아립미술관, 서울)  
1985 문서작가 초대전(서울미술관, 서울)  
1984 삶-인간(관호미술관, 서울), 미술평론가 추천 작가 선정  
1975 2회 개인전(청주문화원 전시실, 청주)  
1974 1회 개인전(청주문화원 전시실, 청주)

주요 단체전 170회

### 수상

- 2013 올해의 좋은작가상(크루스갤러리)

###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단재 시당(단재 신채호 연장)



크기 291×197cm 재료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  
Lee Han Min Suk 2014

내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난무하는 각종 주장들로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당시 10·26시대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의 12·12쿠데타로 군부독재시대로 회귀하였고 유신체제로 인해 탄핵되었던 민주화에 대한 일망이 서울대학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재점화 되었다.

12·12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의 2인자로서 느리나지 않고 있던 노태우 대통령은 7년의 군부독재 후 대통령이 되어야 할 시점에서 6월항쟁을 빛이하게 되었고 설정을 늦출 수 없었으리라.

그는 전두환 대통령의 뒤를 이어 독재정치와 후계구도까지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이 투표로 사신들의 대표사를 뽑을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내려 국민의 편에 선 사노자가 되었다.

비록 구데타의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심사숙고 했던 노태우 대통령의 모습을 그림에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3당 합당으로 계속해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미심을 달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김대중 대통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노태우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없었다면 이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었으리라.

노태우 대통령이 기도하는 장면은 이 작품의 주제와식이 분명하게 남긴 부분이다. 전두환 대통령의 그늘에 가려 2인자라는 자리표를 달고 있었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 사람으로서의 과거에 대한 참회와 내한민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우측상단의 6월항쟁 장면은 서울대학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넥타이 부대끼지 시위현장에 참여하여 뜨겁게 탄핵되었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그 시절의 사신을 기초로하여 상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이어 최루탄 정소준 사건으로 언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사망하면서 시위가 절정에 이르렀고 당시 민정당 총재였던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화 열망의 의지를 수용하여 1987년 6월 29일 기자회견하는 장면을 작품의 하단에 표현하였다.

역시적인 시간들을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화에 새바람을 일으키 노태우 대통령의 고노에 잔 모습과 새로운 미래를 희망하는 한 시대의 지도자의 모습을 작품 전반에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1964 광주 출생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  
미술인연대 운영위원장

개인전  
2002 네 번째 개인전(구씨녀, 광주)  
2000 세 번째 개인전(시세계미술관, 광주)  
1998 두 번째 개인전(나인갤러리, 광주)  
1997 첫 번째 개인전(덕원미술관, 서울 / 인재미술관, 광주)

주요 단체전  
2006 화가의 지갑 展(광주지하철마트보갤러리)  
민속미술인협회 광주지회 창립기념  
2006 전국민속미술전-미술비디오 展(전라남도청 본관)  
1999 영호남민족미술교류 展  
1995 광주동암미술제(5·18망월묘역)  
달그넓에시 빛고을까지(대구, 광주)  
선곡민족미술인연합 창립 展  
1994 남녘의 산하 展(남도예술회관)  
시연 청년미술의 동향과 선양 展(그림마당 귀)  
민중미술 15년 展(국립현대미술관)  
한국학의 정신과 신감성 展(파란)  
횡단한에서 금남로까지(광주시립미술관)  
JAI LA 展(일본 경도 미술관)  
1992 일하는 사람들 展(온다라미술관)  
Human & History 展(한성갤러리)  
1991 전국청년미술제(그림마당 민)  
한국화 단면 展(일본 오우시카미술관 / 금호미술관)  
1990 오늘+삶의 열퀴 시각 展(한수미술관)





크기 291×197 cm 재료 | 한지에 수묵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金泳三]



108  
업적 – 웅풍(雄風)

재야시절부터 평생을 민주화운동에 몸 바친 김영삼 대통령의 연설 장면을 중심으로, 금융실명제 실시 등 국민과 함께하는 무민 대통령의 모습을 복합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신하고 창조의 과정을 힘 있는 데치로 그려냈다.



110  
민주화 운동

민주신악회의 깃발을 걸고 동빈자들과 꾸준히 한 걸음씩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그려냈고 온 산의 꽃들이 화단하듯 만발한 모습을 중첩적으로 표현했다.

김영삼 대통령  
업적

## 옹풍(雄風)

화가 조환

김영삼 대통령은 제14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민주주의를 위해 30년을 기나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한국 창조의 꿈을 가슴 깊이 품고 있습니다.”라고 연설하였다. 하여 이 작업은 문민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신한국 창조’의 과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업 전면에 군중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문민정부의 주요 업적인 깨끗한 경제 – 금융실명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 지방자치제 시행, 지방선거 실시 장면, 세계화 추구 – APEC 정상 회의, 부산 아시안게임 유치 등 국민과 소통하는 장면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화면의 역동성을 위하여 중앙에 신한국 창조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연설 모습을 배치하였다. 그 다음 대통령이 부산 자성대 컨테이너 구조물을 배경으로 산업 기반 시설을 순시하는 장면을 배치하였으며, APEC 정상회의 의장대 사열에 거수경례로 답하는 모습을 스토리텔링 형식의 서술 구조로 표현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구성화면을 살펴보자면 우선 작품 배경 전체에 국민의 얼굴을 담아냈다. 그림의 중심부에는 문민민주주의를 통한 신한국 창조의 꿈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절하고도 역동적인 연설 모습을 담았으며, 바로 원편에는 1993년 8월 12일 취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금융실명제로 한 금융기관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여직원에게 제출하며 개인재산을 확인하는 장면을 배치하였다.

당시 금융실명제 실행에 호의를 표하는 YS는 못발려 등의 책들이 쏟아져 나왔나. 대통령 바로 옆에는 흥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김용진 행정조정실장 등이 태극기를 중심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도 배치하였다.

그림의 우측 상단에는 5·6 부산 아시안게임 유치보고회에 참석한 후, 자성대 컨테이너 부두의 활기찬 모습을 둘러보는 대통령의 호기심에 찬 표정과 한승수 외무부 장관, 김기재 부산시장의 모습을 그려 넣었고 배경으로 붉은 크레인을 배치하여 화면에 생동감을 부여 하였다.

하단 좌측에는 제4차 APEC 정상회의 침석 후 의장사열을 받은 김영삼 대통령이 결의에 찬 모습으로 거수경례하는 장면과 함께 당시 이수성 총리, 조해령 내무부장관 등의 모습을 담았다.

하단부 우측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과 관련하여, 제4대 지방선거 투표일에 영부인 손명순 여사와 기표소에 나와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동네 아저씨와 같은 친근한 모습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상단부 좌측 끝에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국민들과 연도에서 반갑게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 담아냈으며 그 옆에는 김한표 영부인 경호대장과 거제경찰서장 등의 모습도 함께 배치하였다.

1958 부산 출생  
1988 세종대학교 회화과 및 농 대학원 졸업  
1992-97 An Students League of New York  
School of Visual Arts(조소 스학)  
현재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개인전  
2014 학고재갤러리(서울)  
2012 종산상회공(서울)  
2011 아리랑갤러리(부산)  
2009-10 동산방화랑(서울)  
2008 금호미술관(서울)  
2001 가진회랑(서울)  
1999 아그파갤러리(옹성)  
1995 낫소 카운티 문예진흥원 센시 센터(뉴욕)  
1992 갤러리상문당(서울)  
1987 등덕미술관(서울)

주요 단체전  
2014 공명의 시간(세주도립미술관, 세주)  
2013 상상의 순간들(양평군립미술관, 양평)  
2012 STB& LIFE(포항시립미술관, 포항)  
신수녀(경기도미술관, 인천)  
국제수목대선(대안국부기념관, 타이페이)  
2011 21& Their Times(금호미술관, 서울)  
2010 Anniversary Exhibition(금호미술관, 서울)

수상  
1999 제4회 월산미술상  
1986 제5회 대한민국미술대선 대상  
제6회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1985 제2회 후소회 공모전 내상





크기 | 293×205cm  
재료 | 한지에 수묵채색

김영삼 대통령  
생애

## 큰 산

화가 이김천

산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기록화다. 유토피아 같은 몽환적 산 속이 북적댄다. 민주신악회의 깃발을 내걸고 신념과 의지로 가득 찬 사람들 이 산에 올랐다. 경치를 살필 겨를도 없이 헐떡이며 이제 막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쉰다. 그들은 결국 정상에 올라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희망을 품고 산에 오른 그 동행의 여정에서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묵숙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한결같은 마음에 화답하듯 온 산에는 꽃들이 만발하여 신중은 그들이 그리려던 유토피아다.

갖가지 색으로 겹겹이 멀리 어우러져 보이는 산들은 원근감에 따른 변화의 색감이기 보다는 하나의 조화로움에 관한 이야기이다. 서로 다른 자원의 색이 하나로 어우러져 형형색색의 산이 되었다. 우리들 세상이야기가 이처럼 다른 색들이 모여 하나의 조화가 되고 산이 되며,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곧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이 아닐까?

화면 중심에 기세 좋은 기암괴석과 소나무가 그들의 기개를 호위하듯 펼쳐져 있다. 그럼 가득한 산들은 우리들이 밟아 온 역사의 산봉우리들이다. 하나하나 영광과 아픔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고 땀으로 채우지 않은 곳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기억을 강조하려는 듯 온갖 풀꽃들이 모여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사람들이 궁금해 하지 않으며 관심 갖지 않아도 묵묵히 솟아 오른 산들은 이젠 민주화를 위해서 꽃을 피워 내려는 듯 화사하다. 그러나 세상이 그림과 같은 유토피아가 아니듯 그들이 꿈꾼 세상 또한 꿈이었다. 그렇지만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림 속에서도 영화나 자신이 찍은 사진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찾아낸다.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신악회 시절 동료들과 함께 오른 산을 그런 모습을 보며 그 당시의 시대상황과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 내 자신들의 기억을 추억한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던가. 민주신악회가 산을 오르며 꾼 꿈을 이루어 내었듯이 작품을 보는 많은 사람들 또한 자신들의 소중한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그려진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모두 자신들이 오래도록 간직해 왔던 소중한 꿈들을 다시금 떠올리고 뒤새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림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바로 우리들의 일상인 동시에 곧 우리 자신들이다.

1965 경북 김천 출생

### 개인전

- 2011 *싫다展(자인제노 갤러리)*  
2010 *무진장展(청아 갤러리)*  
2009 *보제재세展(복합공간 가온)*  
2009 *산 山展(이김천 스튜디오 갤러리)*  
법조사 미애불展(기화동60 스페이스 흥례)  
덕주사 미애불展(이김천 스튜디오 갤러리)  
2008 *술다기展(이김천 스튜디오 갤러리)*  
열하인기展(이김천 스튜디오 갤러리)  
꽃이 꾸나展(스페이스 몸 미술관)  
산 山展(이김천 스튜디오 갤러리)

### 주요 단체전

- 2013 이트로드70아트페어(해이리, 파주)  
2012 아트로드77아트페어(해이리, 파주)  
2011 비상展(신세계 갤러리, 광주)  
2010 우리들 사는 이야기展(롯데갤러리, 대전)  
손꼽의 일상展(스페이스 몸 미술관, 청주)  
미술속 삶의 풍경展(포항시립미술관, 포항)  
웃음이 난다展(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09 소리풍경展(스페이스 몸 미술관, 청주)  
충청북도 박물관 미술관 찾아가기展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2008 폭가능한 귀향展(스페이스 흥리, 서울)  
2007 개와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展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지구의 기억展(제비울미술관, 과천)  
생각하는 展(성곡미술관, 서울)  
SOAF 아트페어(코엑스 캔버선홀, 서울)  
2006 건공시대(EBS-Space 전시구; 서울)





크기, 291×182cm      자료: 상시어 아크린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金大中]



114

업적 – 평화통일의 꿈

정보화 사회의 핵심인 IT 산업을 육성하고 남북정상회담과 핫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국력증강의 또 다른 상징인 2002 한일월드컵과 함께 배치하여 나타냈다.



116

평생의 화두였던 민주화운동, 또 그로 인한 오랜 투옥생활 그리고 대통령 재임 시 IMF경제위기 극복 등 김대중 대통령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들을 환희에 가득 찬 환영 인파 속 대통령 모습을 통해 나타냈다.

김대중 대통령  
업적

## 평화통일의 꿈

화가 이사범

김대중 대통령은 젊은 시절부터 민주주의 실천가였다.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강조하였고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다섯 차례 걸쳐서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였으며 10년여의 망명 및 연금 생활 등의 고난을 겪었다. 그리고 네 차례의 도전 끝에 1997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헌정사상 첫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다.

많은 업적과 민주주의 평화통일에 대한 집념을 가진 대통령이지만 극한 반대세력 또한 상당부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작품 구상과정에서 남북정상의 악수 장면을 크게 부각했으면 하는 의견을 수용하여 기록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오로리 빛으로 처리한 바탕에 김대중 대통령의 독서 모습을 주제로 하고 남북정상의 만남을 부제로 하여 뒤편에는 환영 군중을, 그 위쪽에 백두산 천지를 그려 김대중 대통령의 평생 염원인 평화통일을 상징하도록 하였다. 월드컵에서 세계적인 응원문화를 낳게 한 구호, '꿈은 이루어진다'를 서울시청 앞 수십만 응원 시민 가운데 넣으니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이 표현되는 효과가 있었다.

좌측은 금강산 관광을 상징하는 관광객의 기념사진으로서 외금강 호텔 앞에 있는 "반갑습니다" 돌비석 위로 금강산 안내도를 그렸다. 남북이산가족 상봉도 넣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수용하여 상봉모습을 넣으니 상봉과 "반갑습니다"도 잘 어울리게 되었다. 남북정상의 악수장면 옆에 노벨 평화상 수상장면과 메달을 배치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와 그 뒤에 나열된 이진수는 IT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아이콘과 광케이블을 그려 넣었다. 그밖에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개성공단 등을 다루지 못한 점은 좀 아쉽다.

1949	광주 출생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주요 경력	
2011-13	전남대학교 미술과 시간강사
2000-03	전남과학대 시간강사
개인전	
1982	개인전(삼양백화점 아카데미미술관, 광주)
주요 단체전	
2014	충북민족미술 페스티벌(우민아트센터, 청주)
2013	충북민족미술 페스티벌(청주아트홀, 청주)
2013	전남대학교 몽고 울란바토르대학 교류전(울란바토르, 몽고)
2013	은암미술관 기획초대 미강 공유전(은암미술관, 광주)
2013	오월 1980년대 광주민중미술(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2	은암미술관 기획초대 전대마강회전(은암미술관, 광주)
1995-97	광주비엔날레 특별전(광주통일미술제 1~2회)
1994	민족미술 15년전(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동학 100주년 기념전(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주)
1990-2002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정기전(광주)
1989-2013	광주민중항쟁 기념 5월전(광주 구 도청 일대 및 망월농)
1986-87	청년구상작가 초대전(제3미술관, 서울)
1980	지방작가 초대전(문예진흥원, 서울)
작품 소장	
	광주시립미술관(아들의 낫을 가는 아버지)





크기 | 291x 197cm

자료 | 캔버스에 유채

김대중 대통령

한국미술  
전시회

## 환희의 민주주의

화가 김우성

이 작품은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충실히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역사적 의의와 예술적 형식을 조화시키고자 다양한 기법을 동원하였고 인물의 생애를 함축적이고 명료하게 한 폭의 그림에 담아야 하기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들을 골라내 화면에 배치하였다.

전체적인 구도는 5·18 국립묘지에서 행사를 마치고 수많은 인파 속을 지나가는 장면이다. 이 구도는 '5·18 민주항쟁으로 상징되는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항쟁의 시작점에서 바다와 같은 민중들을 만난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5·18 민주항쟁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성신을 민중의 바다에서 민중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일구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수많은 민중들의 각이한 얼굴과 형상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이웃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아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생애를 민중들의 형상을 통해 나타냈다.

6년간의 투옥생활을 상징하고자 수인복 형상을 그려 넣었고 과거사 진상 규명의 업적을 상징하고자 아들의 초상화를 들고 있는 유가족의 형상을 배치하였다. 또한 남북 단일기를 들고 있는 소년을 통해 통일에 대한 염원을 얘기하고자 하였다.

1. 관 풍선의 노란색은 민주당의 전통색이며 민주주의의 환희를 뜻한다. 맨 아래에 배치되어 있는 우크렐라를 연주하는 힙합 헤어스티일의 외국인은 하피문화로 상징되는 자유를 노래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촛불을 들고 있는 어린 아이는 민주주의 어린 싹을 상징하는 것이며 대통령을 바라보며 눈물짓는 형상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민중들의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앙 상단의 소나무는 추위와 매서운 바람에도 자신의 색을 잃지 않는 원칙과 지조를 상징한다. 김대중 대통령 내외 뒤로는 동교동계를 비롯한 고난을 함께 했던 동지들을 배치하였고 좌측에는 해외에서 그를 응원하였던 많은 해외인사들을 배치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전대통령, 스티븐 호킹 박사, 클린턴 미 전대통령, 고르바초프 소련 전대통령, 세계적인 팝가수 마이클 잭슨, 아웅산 수지 여사, 코라손 아키노 필리핀 전대통령, 마지막으로 그의 정신적 스승인 빌리 브란드 서독 전총리 등이다.

김 대통령 주위로 활동들이 꽂다발을 안기며 가시는 걸음마다 꽃을 깔아 주고 있다. 그가 발 딛고 서있는 땅은 거친 흙탕이 바, 가시밭길을 살아오신 생애의 길을 표현하고 있다.

1972 서울 출생  
1996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현재 한국미족예술단체총연합 회원

수요 경력  
2010.13 공공도서관 세밀화 강사  
2010 해남우리신문 만평가 역임  
2008-10 긴강한 농민 만평가 역임

개인전  
2013 제2회 개인전 '비개인 날의 오후' (해남문화예술회관, 해남)  
2001 제1회 개인전 '광안일기' (대안공간-풀, 서울)

주요 단체전  
2013 공재 기념전(해남문화예술회관, 해남)  
2012 전남민족미술제(해남문화예술회관, 해남)  
2011 20주년 특별전 1991년 청춘의 기억(전남대학교 용시홀, 광주)  
2010 전남민족미술제(해남문화예술회관, 해남)  
    제3회 공재 문학제 기념전(공재고택, 해남)  
    조선대학교 미술운동사 전(조선대 미술관, 광주)  
    시인 고정희 문학제 기념전(고정희 생가, 해남)  
    오월전-벽을 문으로(구 도청 전시실, 광주)  
    오월전 20주년전(광주기획미술관, 광주)  
    해남미예총 청립전(해남문화예술회관, 해남)  
    제1회 공재 문학제 기념전(공재고택, 해남)  
    광주-이흘 개의 창(5·18문화회관, 광주)  
2009 제2회 공재 윤두서 기념전(공재고택, 해남)  
2008 광주 오월전 '광장의 기억' 전(구 전남도청, 광주)  
2007 '땅끝에 누는 바람' 전(해남문화예술회관, 해남)  
2006 광주민마협 청립기념 '핀치한터' 전(메트로갤러리, 광주)  
2005 FUSA전(세종문화회관, 서울)





크기 | 333×218cm      재료 | 캔버스에 유채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盧武鉉]



120 업적 – 국민을, 국토를  
사랑한 대통령!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초석을 세우고, 권위주의를 탈피한 노무현 대통령의 배려와 소통 정신을 담았으며, 분단시대를 넘어 서려는 정치적 실천과 국제적 관계에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122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정의로운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 또 가장 서민적인 대통령으로 살다간 노무현 대통령의 인간미 넘치는 삶을 조선후기 초상화 기법을 이용하여 맑고 밝은 느낌으로 표현했다.

노무현 대통령  
업적

## 국민을, 국토를 사랑한 대통령!

화가 이종구

이 작품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초석을 놓은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을 주제로 그렸다. 특히 국토와 국민을 사랑한 사람 냄새나는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와 전 국토를 포용하는 자세로 화면을 구성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80년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하였다. 그의 정치 인생은 원칙을 굽히지 않았으며 권위주의, 지역주의 정치 타파를 위해 애쓴 노력의 연속이었다. 재임 중에는 대연정 제안과 사법개혁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지역주의, 권위주의를 탈피하려고 애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그는 지지 정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도 원칙과 소신에 입각, 당정 분리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민주적이고 서민적인, 한마디로 사람 냄새나는 대통령이었다.

작품의 중심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포용하는 자세에 파노라마로 이어지는 한반도와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정부청사를 크게 그려 넣었고 그와 더불어 이땅에 살아가는 농부, 행상, 노동자 등의 이미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소통하려 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담았다. 역대의 어떤 대통령보다도 국민과 국노를 사랑한 대통령의 이미지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초상 우측에는 남북회해와 평화협력을 위해 2007년 방북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업적을 담고자 김정일 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을 담았다.

작품의 좌측에는 국민 일부의 비난 속에서 국제적 역학관계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후,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이라크 아르빌로 날아가 한국군 자이툰 부대를 전격 방문하여 파병 장병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켰다.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이 분단시대를 넘어서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민족적 역사의식과 정치적 실천을 담은 것이라면 이라크 파병은 국제적 관계에서 한반도의 지도자로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2010년 10월, 30여개 분야 전문가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11.1%가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 시대 영웅'으로 꼽았다.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사람 냄새나는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1954 충남 서산 출생  
1976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1988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 주요 경력

2009-12 인천문화재단 이사  
2008 노무현 대통령 초상화 저작(청와대 소장)

### 개인전

2009 국토 : 세계의 풍경(학고재, 서울)  
2006 두 개의 방 : 대추리 바그다드(평화박물관, 서울)  
2005 올해의 작가 2005 – 이종구(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3 주인을 찾습니다 – 이라크·이슬람 기행선  
(신세계갤러리, 인천)  
1996 가·나미술상 수상기념전(가나화랑, 서울)  
1990 오지리 사람들(오지초등학교, 서산)  
1986 땅의 사람들(그림미당·민, 서울) 외 다수

### 주요 단체전

2014 민주인권평화전 – 오월의 파랑새(광주시립미술관, 광주)  
구리안 뷰티 : 두 개의 자연(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사람들 – 한국과 카사흐스탄(국립현대미술관, 카자흐스탄)  
2013 빌리 – 제주, 두 삶의 결의(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 자카르타)  
2012 한국 현대미술 – 거대서사(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현대미술특별전 – 여기 사남이 있다(대전시립미술관, 대전)  
DMZ 평화미술프로젝트 겨울 겨울, 봄  
(경기도미술관, 안산) 외 다수

### 수상

2010 우현예술상(인천문화재단)  
2004 올해의 작가 선정(국립현대미술관)  
1994 가·나미술상(기나아트)  
1983 중앙미술대전 장려상 - 차석(중앙일보사)

###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성곡미술관, OCI미술관, 고려대학교박물관, 미술은행,  
인천문화재단, 씽지아트컬렉션, 청와대, 한국은행, 아리랑문화다





크기 | 291×199cm      재료 | 캔버스에 유채

노무현 대통령  
생애

## 사람 사는 세상

화가 이은호

작품에 배치된 장면들은 1988년 5공 비리 청문회를 통해 강직하고 정의로운 이미지로 국민에게 각인되었던 국회의원 시절과 국회의원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함께 해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들, 퇴임 후 봉하마을로 낙향한 뉘자연 친화적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친근한 모습,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장소였던 부엉이 바위, 사전거를 타고 봉하마을 논두렁을 달리는 모습, 충청북도 도지사에게 청남대의 열쇠를 전달하는 개방행사 모습(대통령의 전용 별장이었던 청남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충청북도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주인되게 한 것), 봉하마을에 찾아 온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 등이다.

작가는 이번 작품을 통해 국민들의 가슴에 젊고 바른 정치인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노사모의 지지를 기반으로 국민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연두색과 노랑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표현하였다.

위쪽 상단을 시작으로 5공 비리 청문회의 주역이 된 국회의원 시절의 혈기 넘치는 모습, 노사모와 함께 한 인연과 시간들, 한 가롭게 자전거를 타는 소탈한 모습, 청남대 개방행사 시 충청북도 도지사에게 열쇠를 전달하는 모습, 부엉이 바위를 배경으로 동사일을 하는 모습, 마지막 인사처럼 국민들을 향해 활짝 웃는 모습을 원형의 구도로 완성하였다.

위의 소재들을 통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의로움으로 끄집개 살나 간 노무현 대통령의 인간미 넘치는 삶을 그리고자 의도하였다. 작품의 중앙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듯 밝고 큰 미소를 띠고 편한 모습을 하고 있다.

작품 기법을 요약하면 한지를 5배점한 화면 위에 명반과 아교물을 섞어 전체에 두 번 도포하고, 한천물을 한 번 도포한 후 먹으로 바탕색의 음영을 주고 안료를 아교물에 개어 우리나라 전통회화 기법으로 그린 그림이다. 조선후기의 초상화 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인물을 표현하였고 부분 담채와 진채 기법을 혼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맑고 밝은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1966 충남 부여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 전공  
및 동대학원 미술학 박사  
현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동양화 선공 부교수

개인전 23회  
서울, 뉴욕, 경기 등

주요 단체전  
2005 서울미술대전, 회화(서울시립미술관 초대, 서울)  
2003-04 Shanghai Art fair(Shanghai 貿易 Center, 중국)  
러시아정부초청 한·러 현대미술 러시아 초대전  
(Repin Academy Museum, 러시아)  
스리랑카 정부초청 한국·스리랑카 현대미술 초대전  
(B.M.I.C.H Hall, 스리랑카)  
St-art 12e edition  
(Foire Européenne d'art contemporain, 프랑스)

수상  
1992 동아미술대전 특선  
1997 제16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이외 세7, 10, 11, 1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주 예멘 한국대사관, 주 두바이 총영사관,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동방예술대학원대학교 등





크기 300×186cm 재료 | 한시에 담재, 진재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李明博]



126

업적 – 시간의 복제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추진한 4대강사업과 랍사르총회, G20 및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우주발사체 나로호 발사 성공 등 대한민국의 높은 국제적 위상을 증명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정책 실천의지를 초현실적 구성을 통해 표현했다.



128

글지의 건설회사 평사원에서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르며 ‘샐러리맨의 신화’를 이뤄낸 이명박 대통령의 집념과 투지를 나타내는 한 편, 서울시장 재임 시 이루한 청계천 복원을 배경으로 당당히 미소 짓고 서있는 모습을 독특한 조각기법으로 표현했다.

## 시간의 복제

화가 한만영

실용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이명박 대통령의 첫 과업은 조국 균대화의 선봉장으로서의 자부심과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한 건설이었다. 2008년 11월 12일 낙동강 지구를 시작으로 한국형 뉴딜을 내세우며 추진했던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사업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대운하라는 최초 계획에서 대폭 축소·변경되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야심찬 도전의 신을로서, 영산강 줄기의 나주평야를 상징하는 쌀의 눈을 형상화하여 '생명의 씨알'을 모티브로 디자인 한 승촌보를 화면 구성의 주요 이미지로 채택하였다.

송도 국제도시에 녹색기후 기금 사무국(GCF)을 유치하고 제10차 람사르총회(Ramsar Convention)의 창원선언문을 통해 밝힌 자연 생태, 환경 보전 의지 등, 녹색 성장이 미래 산업이란 인식을 절감한 이명박 대통령의 예지와 실천 의지를 절새와 습지식물 꽃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내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된 G20 (group of 20, 2010.11.11~12)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2012.3.26~27) 등은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던 국제행사 중 이목을 끌었던 G20을 기념하여 세계 시도위에 '화합과 번영'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되었고 이 원형 조형물에 비친 서울 무역센터회의장 주변 풍경과 일상은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의 현실을 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청사초롱을 형상화한 G20 엠블럼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주최국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기록화의 핵심 조형요소로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들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인 G20 기념 원형조형물을 화면 중앙상단에 배치해서 '자구=글로벌' 이미지와 중첩되는 효과를 의도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도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실패와 좌절을 딛고 도니어 세계 11번째 자국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성공한 국가가 된 역사적인 나로호(Naro, KSLV-1, 2013.1.30, PM4:00) 발사 장면을 비행기 트랙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의 출국 장면 배면에 배치했다. 이와 같은 화면 구성은 대통령의 업적을 표현하는 데 있어 단순한 사실 기록이 아니라 실제적 현실을 초현실로 전환시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미래로의 여행을 떠나는 나로호를 초현실적으로 배치하여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해체하였다면 화면 전체를 지배하는 공간과 여백은 미래의 공간이며, 이 공간과 여백은 후세가 채워나갈 미래의 현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946 서울 출생

1972 흥의내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 개인전

한국갤러리, 갤러리 세미, 갤러리 싱문당,  
나인 갤러리, 동산방갤러리, 두손갤러리, 갤러리 현대,  
갤러리 박영덕, 표화랑, M갤러리, 가나아트센터,  
코리아아트 갤러리, 노화랑

### 주요 단체전

에꼴 드 서울(관훈미술관, 서울)  
상파울로비엔날레(상파울로, 브라질)  
한국현대미술전 - 70년대의 조류(타이페이, 타이완)  
아시아현대미술전(후쿠오카, 일본)  
한국미술40년의 얼굴(호암미술관, 서울)  
한국현대미술전(북경, 중국)  
카뉴 국제회화제(카뉴, 프랑스)  
동방으로부터의 제안(팔마, 스페인)  
한국현대미술 중남미 순회전  
(에콰도르, 페루, 멕시고, 아르헨티나)  
이시아 국제 미술전람회  
(일본, 대만, 총공, 싱가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한국)



###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선재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영은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세주도립미술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인터콘티넨탈호텔, 국회의사당, 포스코빌딩,  
대한상공회의소, 주 국제연합 한국내표부 등



크기 | 298×197cm      재료 | 캔버스에 아크릴

이명박 대통령

卷之三

화가 박기훈

한 겹 한 겹 쌓인 어두운 심연 속에서 따스한 형상이 시작되고 있다. 인료를 쓸어가는 회화와 이를 다시 꺽아 완성시키는 소각의 방식을 통해 빛을 근본적 요소로 삼아 생명의 근원적인 힘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빛은 작품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시각적인 효과 외에도 정신성을 담고 있다. 또 빛은 그 자체의 발생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다른 사물을 비춤으로써 생명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빛과 더불어 놓이의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는 색이다. 작품에 쓰인 색들은 단순히 우리가 내상을 시각적으로 바라봤을 때 보이는 색들이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대상을 마음 속에서 느끼고 견지했던 색감이 표출된 것이다. 주로 따뜻한 계열의 색들이 사용되는데 그것은 내상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야니. 직접 놀 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낸 물감을 사용하여 겁겁이 안료를 칠하고 말리며 층위를 쌓아가는 손맛이 남기고 이를 점선스레 깎아내가며 이미지를 드러낸다.

일반적인 회화에서처럼 흔 바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과는 반대로, 이 작품에서는 표면이 어둡고 깊숙이 파여 들어갈수록 짐신석으로 밝은 색감의 존재가 드러난다. 그리고 색감의 면석은 대상의 질감표현에 따라 광협장단이 신중이 조설된다. 대상들이 놓인 배경의 공간 또한 작가가 한층 한층 물감을 칠하고 말려서 단계를 쌓아가는 시간의 흐름과 결합되어 공간과 시각의 높이상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역사기록화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현대건설의 일개 사원에서 최고 경영자가 되었고 서울시장으로서 청계천 복원을 이루어낸 그의 뚝심과 추진력은 많은 이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에 대한 열정은 대한민국의 얼굴인 서울시가 자연과 인간 중심의 환경도시로 드나들었고 이 사업 성공을 통해 동북아 거점 도시, 동북아의 금융허브도시로서의 위상을 선점하는 네 학 곁을 더 다가가게 만들었다.

여기에는 추상을 맞추어 현대건설 사장까지 오른 노력하는 모습과 서울시장 재직 시 농원한 아름다운 정계천의 모습을 배경으로 미소 짓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다양한 쪽의 조합으로 표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느껴지는 이미지를 색으로 환원하여 하나씩 차례대로 칠하고 말리면서 수십 가지 색들이 공존하는 색의 판을 만들고 그것을 조각으로 산증히 꺾어나가면서 색의 조화로움과 의미를 되새기며 이명박 대통령의 혼자 을 낙기고자 하였다.

각인(刻印, imprint)은 도장을 새김, 머릿속에 새겨 넣는 깊이 기억된이라는 뜻이 있다. 본인의 작업은 조각도를 사용하여 물감을 짹아내는 새김의 작업으로 이런 빙식을 통하여 이면반 대토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1980 인천 출생

- |         |   |
|---------|---|
| 2006-08 | 중의내하고 만화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 2009    | 중의대학원 내학원 박사과정 미술학과 및 만화전공 수료                         |
| 2009-15 | 한국만화연구회, 서울미술협회, 한국 북 아트협회,<br>중의 만화가 협회, 사단법인 구상선 회원 |

주요 경력

- 2007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 3기 작가 입주  
충의대학교 후서대학교 서종대학교 대구예술대학 히양여자대학교 간시영업

개인전

- |      |                                   |
|------|-----------------------------------|
| 2012 | 루벤 갤러리 조다진                        |
| 2011 | 2011 부산국제아트페어 그스 개인전(부산문화회관, 부산)  |
| 2010 | 비기호 개인전 'Color flows' (아시아드센터 서울) |

주요 대체제

- | 주제   | 전시관   |
|------|---|
| 2014 | Beyond The Plate(최정이 갤러리, 서울)<br>2014 화랑미술제(코엑스, 서울)  |
| 2013 | Interlink Printmaking(한국문화원, 인도네시아)   |
| 2012 | 한고의 巴 Paris Exposition internationale de Beaute de Coree(Paris 89 gallery, 프랑스)<br>2012 포스코 기획조대전 city garden 숲(포스코갤러리 모현) 이인 단체전 100여회 |

수상

- 2013 제4회 경재 내일의 작가상  
2008 2008 단원기준대전 선정작가전 우수상  
제37회 대한민국교사전 특시 의 나수

자포 스파

국회에서 고리현대미술관 이설비송은현 교수 갤러리 으리 갤러리 외 개인'소장' 다수



그림 | 197x295cm  
제작 | 캐나다스에이아프릴  
카팅(Cutting)

## 청남대 역사기록화의 제작 의의

청남대는 충북만이 소유하고 있는 천혜의 보물이자 역대 대통령들이 휴식을 취하며 국정을 구상하고 고민했던 흔적이 서려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대통령이 머물렀던 별장 본관과, 휴식과 운동을 즐겼던 오각정, 초가정, 골프장, 산책로 등을 둘러보고 당시에 사용하였던 도구 등을 관람하며 대통령의 숨결과 빛자취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장소인 청남대가 최근 수준 높은 대통령 테마파크로 발돋움할 수 있는 커다란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 바로 역대대통령에 대한 역사기록화 제작이 그 것이다. 사실 청남대는 대통령별장으로서의 상징성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도 그동안 청남대만의 특색 있는 관광요소 부재와 정치성 한계라는 난관에 부딪혀 있었다. 이러한 고민해결을 위해 역대 대통령 열 분에 대한 생애·업적을 소재로 한 역사기록화를 제작함으로써 이제 청남대는 명실상부한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명품 관광지로 우뚝 섰다고 할 것이다



충남대역사기록화  
회장  
조철경



오각정



골프장



초가정

이번 제작 사업에 추진위원으로서 작가선정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참여하였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가장 중요한 작업은 바로 그림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역사기록화의 주제 선정은 무엇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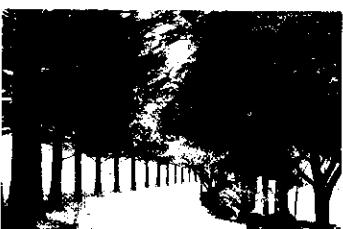




청남대의 봄



여름



기울



겨울

물론 개인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제시될 수 있지만, 기록화라는 의미를 고려할 때, 각 대통령들의 재임 기간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추진위원들은 이러한 인식 아래 각 대통령이 태어나 성장한 과정은 물론 취임 이전에 활동한 내용과 그 당시의 시대상도 함께 고려하면서 재임 기간 동안의 업적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생애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한 후 재임 기간에 일어난 주요 사건과 업적을 일자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때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정 목표로 제시한 내용이나 역사적으로 평가할 만한 중요한 사건과 업적을 추출하였으며, 다시 이것을 주제별로 묶어 최종 정리하였다. 이러한 업적 위주의 주제 선정은 기록화의 제작에서 다른 기준보다 더 객관성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정한 주제와 구성 시안을 토대로 작가를 선정하였다. 그 후, 3차례에 걸쳐 밀그림 협의를 하여 작가들과 소통을 함으로써 작품의 개성을 물론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대통령역사기록화를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유화뿐만 아니라 한국화 및 판화 등의 표현기법도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모든 대통령에 대한 역사기록화는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대통령 기록유형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 세작은 청남대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열 분에 대한 종합적 전시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전직 대통령 열 분 각각의 독립된 테마를 부각함으로써 이전까지는 없던 독보적인 관광 명소로 발돋움시켜 줄 것이다. 또한 이번 역사기록화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생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굴곡과 환희가 공존하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에 관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훌륭한 미술작품을 마련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문화 프로그램 참여방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역사기록화가 전시되는 대통령기념관의 이미지를 향상시킴으로써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상품 개발에도 큰 호재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제 청남대는 대통령의 별장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 수준 높은 미술작품 전시와 함께 고급 관광지로서 한껏 발돋움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곧 충북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다.

청남대는 오랫동안 민간인들이 밖길을 들여놓을 수 없었던 덕분에 청정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생태환경의 보고(寶庫)이다. 20여 년의 삼엄한 통제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전국 어디에나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훌륭한 관광지를 더욱 고품격화 시켜 숲 이번 역사기록화 제작은 청남대의 원형을 잘 보존하면서도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를 미리한 획기적인 사건임에 틀림 없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청남대가 충북, 나아가 전국적인 명품 관광지로 성장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급 관광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대통령 역사기록화 추진과정

## ■ 추진배경

청남대는 역대 대통령들이 머물며 국장을 구상하고 휴식을 즐겼던 충북의 대표관광지이다. 지난 2003년 일반인에게 개방한 이후, 청남대를 방문한 관람객들은 대통령과 가족들이 이용하였던 시설과 그 당시 물품 등을 둘러보는 것이 주요 관람경로였다. 하지만 더 나아가 청남대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한국현대사와 관련된 미술작품이라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는 물론, 역사를 접할 기회가 적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장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오랜 논의와 연구 및 학술적 근거자료 확보를 통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다방면에 걸친 노력 끝에 도비 5억 확보, 대통령기록관의 국비 5억원 지원을 통해 2년여에 걸쳐 총 20점의 미술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 ■ 추진과정

### [1] 추진위원회 개최

- 역대대통령의 주요업적 및 생애를 기록화로 세작
  - 대통령(10명)별 2점씩(업적 1, 생애 1) 총 20점 제작
  - 지명작가는 주요업적, 공모작가는 생애 관련 작품 제작
- 작품당 1명의 작가 선정
- 사업취지 내 다양한 제작기법(유화·수묵화·펜화 등) 허용

### [2] 작품 제작 및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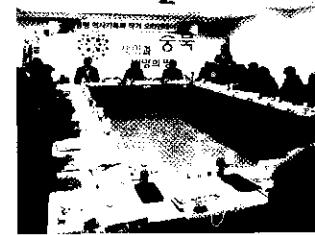
- 지명작가(10명) : 추진위원회에서 추천·지명하여 선정
- 공모작가(10명) : 관련법 및 행정규칙에 따라 응모자 36명 중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시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시 설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 [3] 제작작품 전시회 개최

- 역사기록화 제작 취지와 의미, 추진절차, 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 작가별 작품 대상 대통령 확정 및 계약 체결
- 작가 오리엔테이션 개최



추진위원회



사업설명회

- 역대 대통령 관련 시설물 방문 및 관련 자료 수집
- 참고자료(사진, 동영상, 논문, 서적, 회고록 발췌 등) 자가별 제공



1차 – 김영삼 대통령(업자) “옹성”

- 작가의 작품 의도 이해 및 내용·구성 측면 검토
- 협의위원 : 강준식(작가), 김승환(충북대학교 교수),  
손순옥(충북민족미술인협회장), 신영우(충북대학교 교수),  
연영애(서원대학교 교수),

- 협의 완료된 작가(7명) 작품제작 척수
- 사업처지와 다른 경우, 작가와 면담을 통해 협의
- 협의위원 : 김경인(한국예총충북연합회 부회장), 김승환(충북대학교 교수),  
김정희(충북대학교 교수), 손순옥(충북민족미술인협회장),  
신영우(충북대학교 교수), 하철경(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



2차 – 박정희 대통령(입석) “우내안 출길”

- 협의 완료 및 작품제작 척수
- 협의위원 : 작가, 역사기록학추진위원회, 관련전문가, 청남대관리사업소, 충북발진연구원 등

- 작품 진행상황 섭검 및 임정 소정, 의견 수렴



3차 – 노태우 대통령(상대) “소망” 잠회

**대통령 업적분야  
작가 선정 내역  
(지명)**

소속 · 직위	성명	주요경력
상명대 미술대학 명예교수	구자승	올해의 최우수 미술인상 수상(2011)
전통인물화연구원장	김영철	한국예총 예술문화상 대상 수상(2012)
전업작가	손부남	올해의 좋은작가 미술상(2003)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과 강사	이사범	온암미술관 기획초대 미감 공유전(2013)
중앙대 예술대학 서양화전공 교수	이종구	우현예술상 수상(2010)
전업작가	이재삼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술창작지원선정(2007)
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석좌교수	이철주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전업작가	이홍원	올해 좋은작가 미술상(2013)
성균관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	조환	개인전 13회, 단체전 200여회 등
성신여대 미술대학 명예교수	한만영	아시아 국제 미술 전람회 등

**대통령 생애분야  
작가 선정 내역  
(증·무)**

소속 · 직위	성명	주요경력
전업작가	김성호	김대중 초상제작(대통령私邸 所欽, 2000)
상명대 특임교수	김순옥	대한민국창조예술대상 대상 (국회교육문화체육위원장상, 2013)
전업작가	김우성	전남 민족미술제(2010)
전업작가	박기훈	겸재 내일의 작가상(2013)
작가 / 대학강사	우은정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수상(1999, 2000)
전업작가	이김천	충북민족미술 · 아트페스티벌
충남대학교 회화과 강사	이은정	대청호 프로젝트 – 깊고 푸른물(2013)
홍익대 미술대학원 동양화전공 부교수	이은호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수상(총4회)
한국미술협회 이사	조근영	대한민국회화제 위원
광주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	허달용	5·18 32주년 기념전(2013)

# 대통령 동상 제작 추진과정

## ■ 1차 : 윤보선 대통령 시

- 역대 대통령 관련 동상 및 기념비 등 시설물 벤치마킹
- 형태, 비문 등 다양한 사례조사서 작성



1차 – 윤보선 대통령

## ■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 동상 및 기념비 추진(자문)위원회 구성(2013.09.30)
- 추진위원회 개최(2회 / 2013.09.30, 11.14)
- 분과위원회 개최  
(5회 / 2013.10.08, 10.31, 2014.01.03, 03.06, 11.18, 12.14)
- 동상 조각가 선정 및 문안내용(연보, 휘호) 검토 및 확정
- 동상형태는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작가의 자율성 부여



2차 – 노무현 대통령

## ■ 2차 : 김영원 경 문화재작 추진

- 지명작가(1명) :  
분과위원회에서 추천·지명하여 김영원 조각가 선정
- 동상제작 추진상황 점검  
(7회 / 2014.04.15, 05.20, 06.12, 07.17, 08.12, 10.01, 11.04)



3차 – 동상 신제별 주물식입

## ■ 3차 : 동상 사용설명회 및 세탁 체험

- 역대 대통령 관련 동상 및 기념비 등 시설물 벤치마킹
- 형태, 비문 등 다양한 사례조사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지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4차 – 대통령 주물작업

## ■ 4차 : 동상 제작

- 1차(2014.04) :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 빼대 작업 및 점토작업
- 2차(2014.08) : 대통령 동상점토작업 완료(10점)
- 3차(2014.10) : 대통령 동상주물제작 작업
- 4차(2014.11) : 대통령 동상주물 작업 완료(채색 전)



제작완료 – 이승만 대통령

	구 分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b>역대 대통령 기록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b>	위원장	충북지역 개발회	회 장	이성훈	전 충북일보 회장 겸 빌행인
		충북학 연구소	소 장	김양식	충북발전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장
	동상·문안	충북대	교 수	박걸순	중원문화연구소 소장
	작성주진	국가기록원	연구관	박이준	목포대학교 문학박사
	분과위원회	교통대	교 수	임동욱	(시)한국대통령학연구소 부소장
		서원대	교 수	조경득	충청북도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독립기념관	학예실장	조범래	중앙대학교 문학박사
		한국예총 충북연합회	부회장	김경인	전 중원문화역사인물기록화 추진위원장
		충북대	교 수	김승환	충북문화예술포럼 국제교류분과장
		충북대	교 수	김정희	대청호미술관운영 자문위원
<b>역사기록화 추진분과 위원회</b>	충북민족 미술인연합회	회 장	손순옥	전국민족미술협회 부회장	
		서원대	교 수	연영애	대청호미술관운영 자문위원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원 장	최 진	경기대 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예술문화 단체총연합회	회 장	하철경	호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당연직	충청북도	국 장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청남대 개방 12주년 기념  
**대한민국 역대 10인의  
대통령을 만나다**

발행일 2015년 10월(2쇄)

발행처 청남대 관리사업소

28210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네길

646 (청남대근린 시·인스)

Tel. 043-220-6412 4

Fax. 043 220 6409

면 친 충북발전연구원

인쇄 (수) 대경시